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황석규 · 고광명 · 김순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2000년부터 증가 추세인데, 2006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645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5,56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824명), 필리핀(390명), 일본(157명), 캄보디아(73명), 미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국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증가는 제주지역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그들의 가정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부부관계, 시부모와 가족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 등 이주민과 제주민이 공동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이루어진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찰하여 도민의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실행 타당성을 타진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육사회학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제주사회 적응 과정을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제주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였습니다.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성교육과 교육대상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의 연구결과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노력해주신 연구진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며, 연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함께하는 제주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201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강기춘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질적 방법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민이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대상자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기초적인 작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지향하기보다는 다인종·다민족의 이주민들 스스로가 사회에 적응 혹은 동화되어야 한다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목적은 소수종족집단이 주류종족집단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동화, 적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닌 주류집단 구성들이 이질적인 문화를 지니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원리, 개념 및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그 사회 상황에 적절한 교육의 틀을 성찰적으로 구성하여 실천하는 교육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 연구 대상은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이들이 제주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면서 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설정된 면접 질문지에 근거하여 조사한다. 면접 질문지는 국제자유도시이지만 제주사회의 역사성을 통해 내재화한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에 근거한 시민의식을 지닌 제주시민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내용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면담은 도시·농촌을 안배하여 배정하고, 1회당 2시간 정

도 소요되었으며, 19명을 면담하였다. 둘째, 다문화교육 전문가들로서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해 어떤 사고를 지니고 있고,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제주 이주역사에 나타난 제주인의 성격

1. 제주 이주의 역사

- 제주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이다. 제주 이주역사는 약 4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큰 이주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선사시대 제주에 수렵 집단이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한경면 고산리 유적은 주거지 형태와 고산리식 토기 및 다량의 사냥도구 등의 유물을 통해 북방의 유목민들이 왕래하며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유목민 생활방식으로 제주 전 지역을 활발히 이동하며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며 생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 탐라의 탄생신화는 높은 문물을 지닌 고양부 삼성이 제주로 이주해 안착하고 있는 사실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특히 삼성신화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 성별 역현상이 일어난 현재의 제주사회 현상과 유사하다.
- 원나라 군사, 목호, 그리고 유배인이 제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제주여성과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제주인이 증가하였다. 고려의 제주평정은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몽골 세력의 붕괴는 몽골인 뿐만 아니라 몽골 관련 제주인이 오랑캐와 같은 낙인을 찍히게 되고, 제주인은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왔던 이웃과 강한 배척의 의식을 반강제적으로 내면화해야만 했다.
- 조선시대에 도내로 유입되는 유배인과 도외로 유출되는 제주인으로 이주가 형성된다. 조선시대 제주이주에 관해 주목해야 할 점은 유배인에 의한 제주유입 문제가 아니라 제주인의 제주유출에 관한 내

용이다. 인조 7년(1629년)부터 순조 말(1834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제주에는 ‘출륙금지령’이 선포되고 육지인과의 혼인도 금지되는 제도가 진행된다. 이로서 제주인은 해안 근간에서의 어업 활동만을 허가받게 되고, 제주의 감옥 섬에 완전히 고립되어 생활하게 되면서 편협한 성격이 내제화되는 시기이다.

- 일제강점기 제1시기는 1910년~1924년까지로 일제 통치제도가 제주사회에 설치되어 치안 및 상권을 확보하는 시기로서 일본인의 제주도 입이 진행된다. 제2시기는 1925년~1937년까지로 제주인이 일본으로 노동이주의 붐이 일어난 기간임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동안 가장 많은 일본인이 제주로 유입된 시기이다. 제3기는 1938년~1945년까지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위한 전시체계의 시기로서 제주인들이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던 시기임과 동시에 결7호 작전으로 많은 일본인이 제주로 유입되던 시기이다.
- 제주도 이주에 관한 미군정기의 주요 초점은 1948년에 발생한 4·3이다. 4·3 발발 이전부터 미6사단 20연대(브라운 대령)와 더불어 군경 및 이북5도 출신들이 제주로 강압적 질서안정 유지의 목적으로 이주하게 된다. 특히 철도경찰과 이북출신이 많았는데 4·3의 발발 직후 제주경찰 병력은 2,000명에 이르게 되고 이 중 75%(1,500명)가 타도 출신 경찰관이다.
- 1970년대 제주도는 강력한 국내 이주의 붐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시기였다. 제주도 관광개발의 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주민들은 제주시를 거점지역으로 선정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이 시기에 생활력이 강한 국내 이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을 내하면서 배타적 성격이 강하게 자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6년에는 도민 전체 인구의 0.5%(제주 561,695명, 외국인 2,645명), 2009년에는 1.2%(제주 567,913명, 외국인 6,944명), 2011년에는 1.5%(제주 583,284명, 외국인 8,499명) 그리고 2014년에는 도민 전체 인구의

2.6%(제주 607,346명, 외국인 15,568명)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지역 국제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01명에서 2009년 1,444명, 2010년 1,609명, 2011년 2,007명, 2012년 2,158명, 2013년 2,423명 그리고 2014년 2,69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주에 새롭게 시작된 외국인 유입 열풍은 국내 이주와 성격과 성별 역현상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주현상으로 보이면서 미래 제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2. 국내의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

- 제주인의 편협성은 국내외 이주민들에 대한 우월성보다는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내면화된 성질이다. 제주인의 편협성은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과 거리를 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인은 점차 도량이 작아지고, 외지인과의 의사소통에 거리감을 지니게 하였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양식이 자리하게 되었다.
- 제주인은 국내외 이주민에 대해 목적 합리적으로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인이 소유해야 할 자산들이 그들로 하여금 강탈당한다는 감정이입에 의해 그들에 대한 경계심과 배제시키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해방과 6·25를 경험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선택은 한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와 그 상반된 국가는 극명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한국의 선택적 차별주의는 교육을 통해 세대를 이으며 지속되었다. 선택적 차별주의의 교육환경 속에 자라난 세대들은 다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렵게 된다.

3. 상징적 폭력과 성찰적 시민의식

-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제주인의 상징적 폭력성은 번스타인(Bernstein, B.)과 부르디외(Bourdieu, P.)가 주장하는 상징적 폭력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제주인의 상징적 폭력성은 제주 주류집단이

이주역사를 통해 내제화된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의 성격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야기되는 비물리적인 상징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국제결혼이주여성이라는 자체만으로 의사소통에서 하대를 받거나 소외되고, 차별과 편견을 당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하는 폭력이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미래 제주 사회에 비추어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을 시급히 변화시켜야 할 숙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 이주역사의 변화에서 주요점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 이주민들 대부분이 제주인의 필요에 의해 유입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1·3차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주지역 미혼 남자를 위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이에 속하며, 제주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유입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도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 제주지역 제주인들은 능동적으로 외국인과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가려는 성찰적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주인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과 더불어 상생·융합할 수 있는 범 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제주인들에게 세계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시급히 구상하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Ⅲ.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교육 전문가 조사 분석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조사

-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해 실제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19명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면접하여 그들의 제주사회 적응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제주시민들에 의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이주역사를 통해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라는 성격이 내제화되고 있음도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제주 일반시민, 공무원 또는 다문화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상징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남편으로부터의 상징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다문화교육 전문가 인터뷰 분석

-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조사 분석 후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육지부와 제주에서 인터뷰하여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다문화교육 전문가들은 제주사회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실천되길 희망하고 있고, 특히 육지부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천을 선구자적이며 성찰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IV.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1.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 제주에서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제주사회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의식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제주의 이주역사에서 제주시민들에 내제화된 편협성, 배타성, 선택적 차별주의로 인한 차별과 편견 등의 상징적 폭력성을 누그러뜨리고 성찰적이고 긍정적인 글로벌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민들은 편협성 대신에 다양성을, 배타성 대신에 포용성을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 대신에 다인종·간문화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2.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순위

- 제주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제주인의 다양성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선진 다문화사회의 역사 경로를 이해하며, 그들 사회가 경험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외국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사례를 경청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문화에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 제주시민이 지닌 배타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요하지만 제주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내제한 배타성을 없애고 포용성의 성격을 지닐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이 이뤄져야만 한다.
- 현재까지 제주에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원에서의 사회갈등과 문제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주인이 지닌 선택적 차별주의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정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상징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적 차원에서 제주인의 선택적 차별주의를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진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자아내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게 된다.

3.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주지역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으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1)제주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2)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3)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일반시민인 경우 제주 이주역사를 이해하고 제주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하게 하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 제주사회의 변화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상생하고 융합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주인 스스로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행동양식을 전환하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한국과 제주 다문화 현상 및 정책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선진 국가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사례를 경청하며 다문화 인식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생활을 토론과 대화로서 인식하여 그들이 제주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 구성원 특히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전통적 제주 가족제도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주사회에서의 가족 유형과 새로운 가족 내에서 남편의 역할과 자긍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서 가정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과정을 통해 파악된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일련의 기초 작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제주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의 수에 기인하며, 특히 지속적 성장세를 나타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체계 구축과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5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실천 가능해야 한다. 둘째, 대상자별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의 상세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별 다양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제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인의 성격 규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네트워크의 구성과 논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13
II. 제주 이주역사에 나타난 제주인의 성격	17
1. 제주 이주의 역사	17
2.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	33
3. 상징적 폭력과 성찰적 시민의식	38
III.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 및 다문화교육 전문가 조사 분석	43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조사	43
2. 다문화교육 전문가 인터뷰 분석	59
IV.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65
1.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65
2.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순위	77
3.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79
V. 결론 및 제언	89
1. 결론	89
2. 제언	92
참고문헌	95
ABSTRACT	100
부 록	101

〈표 차례〉

〈표 I -1〉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2
〈표 I -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 현황	3
〈표 III-1〉 연령대별	43
〈표 III-2〉 학력별	44
〈표 III-3〉 직업별	44
〈표 III-4〉 이주 시기별	45
〈표 III-5〉 국적 취득별	45
〈표 III-6〉 거주 기간별	46
〈표 III-7〉 거주 지역별	46
〈표 III-8〉 출신 국가별	47
〈표 III-9〉 결혼 시기별	47
〈표 III-10〉 결혼 동기별	47
〈표 III-11〉 자녀수별	48
〈표 III-12〉 연령대별(배우자)	49
〈표 III-13〉 학력별(배우자)	49
〈표 III-14〉 직업별(배우자)	50
〈표 III-15〉 본적지별(배우자)	51
〈표 III-16〉 시부모 생존여부(배우자)	51
〈표 III-17〉 형제자매(배우자)	52
〈표 III-18〉 남편과의 관계 정도	52
〈표 III-19〉 시부모와의 관계 정도	53
〈표 III-20〉 시부모와의 동거 관계	53
〈표 III-21〉 자녀보육과 교육 관계	54
〈표 III-22〉 제주사회(문화) 이해 정도	55
〈표 III-23〉 제주문화와의 차이 정도	55
〈표 III-24〉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56
〈표 III-25〉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57
〈표 III-26〉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57

<표 III-27>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58
<표 III-28> 한국(제주)의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	59
<표 III-29> 다문화교육 전문가 일반적 사항	59
<표 IV-1> 일반시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82
<표 IV-2> 공무원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84
<표 IV-3> 다문화가정 구성원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88

[그림 차례]

[그림 I-1] 제주 외국인 현황	1
[그림 IV-1] 문화적·국가적·지역적·세계시민적 정체성	66
[그림 IV-2] 향후 의식 변화의 방향	67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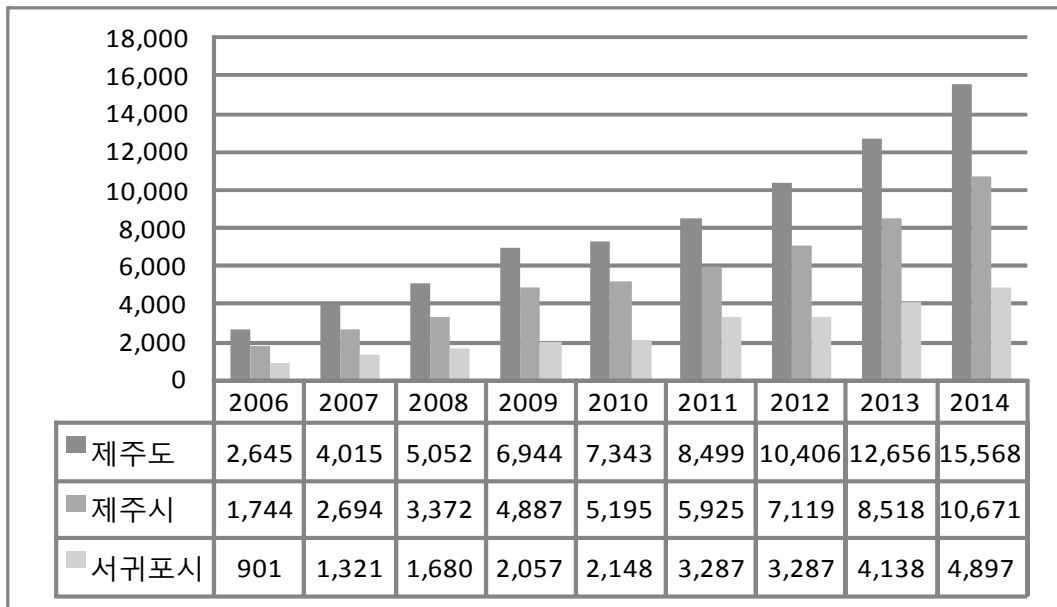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민족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역시 2000년부터 그 물결이 심상치가 않다. [그림 I-1]에서 보듯이 2006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645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5,568명으로 거의 7배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지역 외국인은 제주시 지역에 2/3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에 1/3로 분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의 성장 속도는 매년 거의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쏠림과 밀림 현상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단위 : 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양성평등과(각 년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 작성.

[그림 I-1] 제주 외국인 현황

〈표 1-1〉에서 보듯이 국제결혼이민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1,201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696명으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의 빈도가 높은 지역 중 제주지역은 4위(전남, 전북, 충남, 제주)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지역 전체 결혼의 10%가 국제결혼에 의해 가정을 일구고 있다.

2014년 현재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2,696명이며, 그 중 중국인(재중동포 포함)이 885명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베트남(824명), 필리핀(390명), 일본(157명), 캄보디아(73명), 미국 그리고 러시아 등의 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들과의 국제결혼 수가 점차 감소하는 대신에 베트남인과 캄보디아인의 국제결혼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국제결혼가정은 일반가정에 비해 가정 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지니게 되며, 또한 자연히 자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그 자녀의 양육, 보육,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차후에는 사회의 안전망과 직결하게 된다.

〈표 1-1〉 국제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미국	러시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008	606	207	113	75	19	9	8	6	158	1,201
2009	686	360	183	72	17	6	10	10	100	1,444
2010	718	423	228	69	17	9	11	13	121	1,609
2011	771	554	291	117	32	12	13	12	195	2,007
2012	728	658	322	132	33	13	14	10	248	2,158
2013	781	746	356	152	43	15	18	14	298	2,423
2014	885	824	390	157	46	15	17	15	347	2,696

주 : 2013년 기타 298명(캄보디아 65명), 2014년 기타 347명(캄보디아 73명)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양성평등과(각 년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 작성.

<표 1-2>는 읍면동 국제결혼이민자의 수와 그 자녀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2,696명이며, 자녀의 수는 2,60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제결혼가족은 2014년 현재 약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제주시에 가장 많은 국제결혼이민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애월읍, 노형동, 이도동, 연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 국제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정읍, 남원읍, 동홍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의 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국제결혼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다.

<표 1-2>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 현황(2014년 1월)
(단위 : 명)

구분	국제결혼이민자	자녀	구분	국제결혼이민자	자녀
제주시	1,866	1,809	서귀포시	830	791
한림읍	115	125	대정읍	118	124
애월읍	201	226	남원읍	88	90
구좌읍	101	108	성산읍	72	75
조천읍	132	125	안덕면	65	74
한경면	46	57	표선면	80	51
추자면	20	17	송산동	30	17
우도면	6	8	정방동	19	12
일도동	117	101	중앙동	25	19
이도동	174	163	천지동	14	20
삼도동	77	80	효돈동	15	13
용담동	92	97	영천동	25	33
건입동	45	34	동홍동	88	99
화북동	104	88	서홍동	29	28
삼양동	75	61	대륜동	53	35
봉개동	20	16	대천동	36	27
아라동	53	43	중문동	46	53
오라동	30	22	예래동	27	21
연동	162	141			
노형동	198	191			
외도동	56	57			
이호동	33	41			
도두동	9	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양성평등과(2014년 1월)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 작성.

역사적으로 제주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은 신화적으로는 탐라시대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기록상으로는 고려시대 몽골의 지배에서부터 일제강점기를 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기 전까지 제주지역의 국제결혼은 일반적으로 제주여성과 외국남성과의 결합으로 진행되었지만, 2000년대에는 아시아 여성과 제주 남성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성별 역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성별 역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 추세라면 10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와 연관된 국제결혼이민자는 2000년대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나타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제주남성의 결혼에 관련된 사회현상과 관계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증가는 제주지역 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다양한 사회문제를 제시하게 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인 다문화가정은 가정생활의 안정화를 위해 그녀와 부부관계, 시부모 가족과의 원활한 관계, 자녀양육 및 교육관계 등과 관계하는 다문화가정 내 의사소통과 문화생활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를 다문화가정 구성원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제주사회의 측면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정의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해 생활을 영위해야만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정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생활 안정화와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받아들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스스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생활과 제주사회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제주시민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도록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고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국제결혼 관련 제도적 도입 및 개선 의지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스스로 자신의 가정생활 안정화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더욱 주요한 것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제주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제주시민 스스로의 의식을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여기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우선 자신의 가정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한국어 능력 향상 및 가정 내 구성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제주사회에 적응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이주여성도 제주사회에 적응하며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제주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제주시민과의 대화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식을 내재화해야만 한다.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다문화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제도 도입 및 개선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되지 못한다. 제주시민 스스로 그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려는 다문화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사회에서 진행될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거주 외국인(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상생하며 융합하며 살아가려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다문화교육의 일환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국제결혼 관련 실태와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관련 제도적 장치의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과연 국제결혼이주여성들과 제주시민과 함께 상생하며 융합할 수 있는 의식 정도와 행위 양식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제주시민의 의식과 행위 양식은 역사적으로 외국인과 어떤 관계 유형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 어떤 성찰적인 관점에서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며, 행동 양식을 진행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질적이며 비판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시민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게 될 것이며,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대상자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는 기초적인 작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 I 장 서론에서는 제1절에서 연구의 목적, 제2절에서 연구방법 및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제 II 장에서는 제1절에서 제주의 이주역사, 제2절에서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 제3절에서 상징적 폭력과 성찰적 시민의식을 서술한다. 제 III 장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교육 전문가에 대한 인터뷰 조사 분석을 서술하고자 한다. 제1절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대한 조사, 제2절에서 도교육청, 문화기관, 시민단체, 대학 등의 전문가를 방문 조사하고 그 분석 내용을 서술한다. 제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로 제1절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나타난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제2절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행 타당성을 강조하고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우선 실행 순위를 알아보며, 제3절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담아야 할 주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행을 위한 결론을 도출하고, 향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주제의 독창성

본 연구과제로 삼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경험적인 연구로서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제주사회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큰 주제이다. 국내 다문화 시민성교육 관련 연구로서는 초기단계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로서 학문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한국 다문화사회 연구에 기여하는 나름대로 독창적인 과제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의 다문화 연구는 실태조사(제주특별자치도 2007), 다문화 자녀 교육 연구(김민호 2006; 오성배 2006; 황석규 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 구술조사(염미경·김규리 2008)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농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김진희·박옥임 2008; 김한곤 2009; 박재규 2006; 박주희·정진경 2007; 양순미 2006; 정천석·강기정 2008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도시·농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모습은 다르며, 이들에 대한 심층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주안점은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에 관한 환경이 열악하

다. 국제결혼이민자 관련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점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현재 다문화 시민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지만 현안 중심적이고, 제도적 온정주의이며, 사후 관리적 차원이란 평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과 직장, 그리고 이웃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지인들의 사고 전환을 주도하는 시민성교육이 현재 시급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연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해 그 의의가 높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물들과는 상이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동화주의)과 다문화 시민성교육(다문화주의)의 종합을 교육사회학, 여성학, 가족 사회학적 관점으로 시도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정책과 사업이 동화주의적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제주시민의 외국인에 대한 행동양식을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비판적이며, 학제간의 협력을 구하는 다문화교육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넷째,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인하여 법률·행정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이 일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른바 ‘혁신(innovation)’이라는 이름 아래 도입되는 새로운 시스템의 첫 실험 대상으로 선정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국제적인 삶의 변화도 가장 먼저 체험하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안경식 외 2008; Banks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공동체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 시민성교육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한 독창성을 지닌다.

3) 국내외 기존연구와의 비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과정을 통해 파악된 분석 자료에 근거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다문화 시민성교육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있다. 최근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지향하기보다는 다인종·다민족의 이주민들 스스로가 사회에 적응 혹은 동화되어야 한다는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에서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에 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성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¹⁾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교육사회학적 접근은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류종족집단(majority)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소수종족집단(minority)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회생물학적 관점(sociobiological perspective)에 근거하여 시작되었는데 그 대표적 연구자로는 Jensen(1969), Shockley(1972) 그리고 Herrnstein(1973)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유전적 특성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저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Herrnstein(1973, 14)은 “사회계층은 유전적 상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비백인종족의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저하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비백인종족이 대부분 하위계층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인종과 연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교해서 Riessman(1962)과 Bereiter & Engelmann(1966)은 환경결정주의적 시각에서 문화박탈(cultural deprivation)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장애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다문화가정의 빈곤과 비조직적 가정의 특성들이 자녀의 학습장애를 일으키는 요인들로 간주하면서, 이런 학습장애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가 지닌 문화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1)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은 2010년 황석규 논문 ‘제주 다문화 현황과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에서 차용한다.

또한 통합주의자(Integrationist)들은 다양한 인종들을 통합한 학교가 설치되게 된다면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백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소수종족 학생과 부모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다(Coleman · Kelly · Moore 1975; Pettigrew & Green 1976).

이러한 사회생물학적, 환경결정주의적 그리고 통합주의적 관점은 문화차이론자(문화다원주의자, 이중문화론자, 다문화이론가)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미국 흑인들의 민권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 반문화운동 등에 힘입어 백인중심주의의 비판과 반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문화차이론자들은 소수종족집단의 구성원들이 고유의 집단적 특성과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로 새롭게 범주화시켜야 하며, 이들이 소외되고 차별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교와 대학의 개혁을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들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다(Banks 2001, 3).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다문화교육은 주류종족집단이 이끄는 사회문화에 소수종족집단 구성원들이 동화되고 적응하는 교육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을 피력한다. 소수종족집단의 구성원들은 주류사회 문화에 사회화되어 주류종족집단의 구성원 행동과 유사해야만 소외당하거나 놀림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 소수종족집단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이전 문화 중 일부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김희용 2008, 89). 하지만 동일한 행동과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도 소수종족집단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지닌 유전적 외모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적 편견과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은 소수종족집단 구성원들이 주류사회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주류종족집단의 구성원들도 소수종족집단의 고유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아가서 주류종족집단 구성원들에게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향은 2008, 48; Banks 2001, 24).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이란 표현은 Kymlicka(1995)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다문화 시민성이란 종족, 문화적 공동체와 시민문화 양자를 모두 실행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이며 권리라는 것을 정당

화하고 인식하게 해준다.”라고 주장한다(Banks 2007, 48). 또한 그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새로운 시민교육이라고 명명하면서 “학생들이 문화, 국가, 세계 일체성(identification) 간의 정교한 균형에 이르도록 해야 하며,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하고, 지식 생산자가 되도록 지원해주고, 더욱이 인간적인 국가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민행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사는 다문화 세계 사회에 대해 사려 깊고, 배려하며, 성찰적인 시민이 되도록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성찰적인 문화, 국가, 세계 일체성을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Banks 2007, 43).

지금까지 설명한 주류종족집단과 소수종족집단 간의 이론적 접근들은 한국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주류 한국문화에 동화(assimilation), 적응(adaptation), 사회화(socialization)되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를 교육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습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온 것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이었다(김선미 2008, 63).

최근 다문화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한국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다원주의적이고 문화적 상대주의의 입장을 고려하고 있어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집단 간의 상호이해와 수용, 조화의 평화적 공존을 표방하고 있다(오경석 외 2007; 안경식 외 2008). 또한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분단 상황과 다문화 상황이라는 이중적 특수성을 감안해야하므로 다른 나라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있는 그대로 이식하거나 도입·소개하려는 시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한국 상황에 적절한 다문화교육의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박철휘 2008; 양영자 2008; 이민경 2008).

결국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목적은 소수종족집단이 주류종족집단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동화, 적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닌 이질적인 문화를 지니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원리, 개념 및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진행하면서 그 사회 상황에 적절한 교육의 틀을 성찰적으로 구성하려는 일련의 교육인 셈이다. 더욱이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복리 및 세

계 시민적 정체성(identity)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려고 한다. 국가, 지역,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각 문화적 정체성들의 정교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시민교육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김선미 2008; 양영자 2008; Banks 2008; Kymlicka 1995).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의 제거, 다양성 존중, 차이에 대한 관용, 이질적인 문화의 평화적 공존 등이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주된 이상이라면 소수종족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제대로 달성되기 어렵다. 더욱이 주류종족문화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 소수종족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자칫 이들을 더욱 주류종족문화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수종족집단을 위한 교육의 정당성 역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관통하는 보다 보편적인 인류 공통의 가치나 문화원리가 전제될 때 비로소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문화, 국가, 글로벌의 본질을 발달적으로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개인은 건전하고 성찰적인 문화 정체성을 습득하였을 때에 한하여 건전하고 성찰적인 국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실제적, 성찰적, 긍정적인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이후에 비로소 성찰적이고 긍정적인 글로벌 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다”(Banks 2007, 52). 범세계화사회는 다양한 문화의 집단들이 글로벌 정체성을 지니고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가는 사회이다(정유성 2008, 67). 일련의 사회에서 주류종족 집단과 다양한 소수종족집단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융합사회인 것이며,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성찰적이고 관념적이지만 한 국가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글로벌 정체성을 함양하려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민족적·국가적·세계적 정체성, 헌신, 이해, 행동 등 여러 방면에서 균형을 유지시키는 구성원을 양성하며, 양성된 그들은 보편적인 민족적 가치와 인류 보편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데 필요한 역량, 헌신의 태도를 갖추는데 있다(Banks 1984, 56).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의 고유한 상황에 적합한 교육 대상, 목적, 내용 및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회의 특수성에 대한 관심과 강조가 지나치게 되면 각 사회마다 고유한 다문화교육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는 오해

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교육의 기본 이념이나 목적, 핵심 내용이 국가나 지역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한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입장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입장을 견지한 한국 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한 연구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를 이해하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자연교육연구소 2007), ‘다문화보육 프로그램’(제주특별자치도 2009),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 교육의 운영 사례’(남미숙 2008)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정 중학생에 대한 반(反)편견 교육프로그램 구안’(민경숙 외 200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사회를 다룬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경환(2006, 69)은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형태와 정치를 검토하고 특히 캐나다와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을 분석하여 이데올로기로서 다문화주의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독특한 지리적 속성과 역사적 경험은 제주의 독특한 집합적 타자성(othersness)과 평등주의적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염미경·김규리(2008)는 제주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민관의 지원정책 및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 특히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에서 온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리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법적·경제적·사회적 권리 향상을 위한 다문화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한국에서의 다문화교육 연구들과 제주지역에서의 다문화교육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상 한국에서의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연구도 드물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연구함으로써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을 찾고자 한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하여 다양성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글로벌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일방적 ‘흡수’나 ‘다름’이 아닌 공존과 상생의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제주지역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오성배 2005).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 사회적응의 정도를 고찰하여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교육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실행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가면서 지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설정된 면접 질문지에 근거하여 가늠해 보고자 한다. 설정된 면접 질문지는 《부록》에서 보듯이 응답자(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정보 사항, 배우자(한국 남편)의 일반정보 사항, 가정생활, 문화와의 차이점, 거주 만족도, 한국(제주) 이주정책 그리고 기타의 순으로 되어 있다. 면접 질문지는 국제자유도시이지만 제주사회의 역사성을 통해 내제된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에 근거한 시민의식을 지닌 제주시민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계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가정생활, 자신들이 지닌 문화 정체성과의 혼란, 제주사회에서의 생활 만족도 그리고 현존하는 제도적 이주정책에 대한 사고 등이 어떠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 지녀야 할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곳이다. 제도적 변화에 가장 주요한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은 글로벌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미래 지향적이며 사전 예방적 제도 개혁을 통한 국제자유도시를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

셋째, 교육전문가인 대학교수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다문화 시민성 교육에 대해 어떤 사고를 지니고 있고,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에 대한 심층연구와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사고와 새로운 모색을 이행해 온 문화 및 시민단체들에 대한 심층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문화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하고 있지만 재정적 문제에 의해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적 적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만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어떠한 교육의 목적을 지니고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성원 전체가 글로벌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한국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기초를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문헌연구에 의한 자료 수집⇒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관한 심층연구⇒도교육청, 다문화 전문교수 및 연구원,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심층면접⇒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논의⇒결론 및 제언 순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연구의 각 부문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면서 전개과정에 따라 내용이 심화되고 영역이 확장된다. 연구의 관점은 처음에는 이론적인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경험적이고 심층적인 입장을 담아내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심층연구 대상은 국제결혼이주여성, 지방자치단체 및 도교육청, 다문화전문가 및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들을 선정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국제결혼이

주여성의 면담은 도시·농촌을 안배하여 배정하고, 1회당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19명을 면담하였다. 처음에는 면접 질문지에 따로 자유롭게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성장과정과 환경(출신국가, 교육정도, 가정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친근감(rapport)을 형성하였다. 이후 구체적인 질문 과정을 통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적응과정 및 거주 만족도 등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제주사회에서의 차별과 편견의 경험을 질문하였고, 이주정책의 장단점에 대한 응답을 요구하였고, 앞으로 제주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식구조의 변화와 이주 관련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지 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국가별, 지역별, 직업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교육수준별 등에 따라 제주사회에 적응하는 상황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지닌 정체성의 문제, 자녀의 양육·교육의 문제,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 제주사회의 이해정도,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 있어서 다양한 적응상황의 내용을 조사한다. 더 나아가서 제주인의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에 따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상생활에서 상징적 폭력의 경험들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제주 사회적응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찾아냄으로써 제주인들에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발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 보다 나은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발굴할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제주사회 적응 실태를 확인하고 세계 다문화사회의 시민성교육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해를 도모한 후에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제주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면담하였다. 이후에 보다 심층적으로 도교육청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시 타당성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제주사회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연구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제주사회에서 다인종·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로 진행되어가고 있고 연구자들은 이에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다문화교육 연구자들이 함께 하며 자신들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간헐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며, 심층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이중적 성향을 통합적으로 묶은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연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그들이 행하는 연구들의 현황을 인식하고,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미래 지향적이고 사후 예방적인 제주사회의 다문화 시민성교육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지만 이번 연구에는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면담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현재 크게 11개(제주다문화교육센터,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외국인쉼터, 제주다문화가정센터, 국제사회가정문화원, 서귀포이주민센터,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동제주사회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YWCA)인데 이중에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서귀포이주민센터를 제외한 10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한국어 교육과 제주문화 이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이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근거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이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근접한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 혼합된 형태의 다문화교육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면담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체 10곳 단체의 다문화교육 전문가와의 면담은 진행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에서의 인터뷰만을 진행하게 되었다.

II. 제주 이주역사에 나타난 제주인의 성격

1. 제주 이주의 역사

제주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이다. 제주 이주역사는 약 4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9단계의 큰 이주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1) 선사시대

《제주지질형성사》를 살펴보면 50만 년 전에서 30만 년 전까지 제주도 화산이 최성기였다고 한다. 구석기중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시기인 10만 년에서 2만 5천년에 기생화산군(寄生火山群)이 활동하여 마지막 단계의 제주 섬(島)이 만들어진다(강창화 2013, 2). 화산활동이 진행되는 시기에는 인간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환경조건이었다. 고고학적 발굴에서 제주에 인간이 처음으로 거주했던 흔적은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을 근거로 하는데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빌레못’ 동굴이다. B.P. 4만 년 전으로 파악되고 있는 빌레못 동굴 유적에서는 타제석기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지방에서 서식하는 순록과 황곰의 뼈가 발굴되고 있다. 또한 1977년에 제주국립박물관 조사단에 의해 천지연 ‘생수굴’ 동굴 유적에서 구석기후기의 유물 3점만이 수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주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집단적으로 거주한 모습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제주에 집단적으로 정착을 하며 살아가는 첫 모습의 발견은 B.P. 12,000년 전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신석기 유적은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사적 제412호)에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제주 섬 모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수면의 상승과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경면 고산리 지역은 도외에서 유입된 수렵 집단의 인간들이 제주 섬에서 정착하며 거주하는 첫 무리집단이 된다. 제주가 점차 섬으로 확인한 모습으로 자리하면서 육지부와 고립된 상태로 이어지며, 수렵 집단은 자연환경에

서 자신들의 생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내에서 유목민 생활 영역을 형성하게 된다(강창화, 2013).

고고학적 발굴 연구에 비추어 제주도내 수렵 집단들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폐총 등의 유물 등을 토대로 파악하여 본다면 유목민 생활방식에 근거해서 제주도 전역을 생활권으로 하여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은 구좌읍 김녕리 유적, 삼양동 유적 그리고 아라동 유적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제주에 수렵 집단이 최초로 거주하기 시작한 한경면 고산리 유적은 주거지 형태와 고산리식 토기 및 다량의 사냥도구와 주거지 등의 유물을 통해 북방의 유목민들이 왕래하며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강창화 2013), 이후에도 유목민 생활방식으로 제주 전 지역을 활발히 이동하고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며 생활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고학적 연구는 제주 초기 형성 시기에 이미 이주의 성격이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탐라탄생신화

탐라 탄생신화의 터전인 삼성혈은 사적 제134호(1964년 6월)로 지정되어 있다. 삼성혈은 1526년(중종 21) 이수동(李壽童) 목사가 3개의 혈(穴) 주위에 돌담을 쌓고 북쪽에 홍문(紅門)과 혈비(穴碑)를 세워 삼성의 후예로 하여금 춘추제를 모시게 하는 성역화를 하였고, 매년 11월 상정일(上丁日)에 도민으로 하여금 혈제(穴祭)를 모시게 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이후 1698년(숙종 24) 유한명(柳漢明) 절제사가 혈(穴) 동쪽에 삼을나묘(三乙那廟, 지금의 三聖殿)를 세우게 하고, 1772년(영조 48) 양세현(梁世絢) 방어사가 바깥 담장을 쌓아 소나무를 많이 심게 하고 제전(祭田)을 마련하여 향청(鄉廳)으로 하여금 혈제를 지내게 하였다. 1827년(순조 27) 이행교(李行敎) 방어사가 전사청(奠祀廳)을 창건하고, 1849년(헌종 15) 장인식(張寅植) 방어사가 숭보당(崇報堂)을 세워 오늘의 규모가 갖추어졌다(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9, 30).

신화적 내용은 제주도 원주민의 발상지로 고(高)·양(良: 뒤에 梁으로 고

침)·부(夫)씨의 시조인 고을나(高乙那)·양을나(良乙那)·부을나(夫乙那)의 3신인(神人)이 솟아난 구멍이다. 3신인(神人)은 수렵생활로 가죽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살다가 오곡의 씨와 송아지·망아지를 가지고 온 벽랑국(碧浪國)의 세 공주를 각각 맞이하여 혼인하고 농경생활을 시작하며 삶의 터전을 개척하였다.

탐라의 탄생신화는 설화이면서 동시에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성역화하고 삼성의 후예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는 점에서 허구성과 사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고양부의 탄생 이전에 이미 제주에는 집단 거주민들이 생활하였던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양부 3성은 제주에 존재하는 성씨로서 역사적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 고양부 삼성은 고조선이 붕괴된 이후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내려오는 제주에 선탐라인(선사인)보다 높은 문물과 지식을 지닌 북방민족이 유입되었다고 해석되고 있다. 신용하 (2012, 12)에 따르면 탐라의 시작은 A.D. 1~2세기이며, 고양부의 고씨는 고구려 민족, 양씨는 양맥민족 그리고 부씨는 부여민족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을나’라는 명칭은 북방 맥족(貊族)이 사용하던 용어로서 부여와 고구려, 여진까지도 족장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탐라는 A.D.와 맞물려 북방민족 이동기에 유입된 부족민들에 의해 권력구조의 이동을 시작하며 의도적으로 건국된 나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탐라는 육지와 분리된 이후 해상교통이 주요한 삶의 터전으로 자리하게 된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지역을 왕래하는 선박은 중도 기항지로 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양 항해도를 따라 남방으로부터 제주에 기착한 높은 문물을 지닌 고양부 삼성이 제주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점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결국은 남방 혹은 북방의 높은 문물을 지닌 삼성이 제주로 이주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고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3세기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주호(州胡: 제주)에 관한 기록을 보면, “주호는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에 있다. 그 곳 사람들은 마한인들 보다 조금 키가 작고 언어도 한족(韓族)과 같지 않다. 그들은 모두 선비족(鮮卑族)처럼 머리를 깎았으며, 소나 돼지 기

르기를 좋아한다. 옷은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는데, 상의만 있고 하의는 없어서 거의 나체와 같다. 배를 타고 한(韓)나라에 왕래하며 물건을 사고판다.” 이 기록에서 당시 탐라사회는 미개한 상태를 서술하고 있지만 해상교통을 하며 생활하는 모습과 무역을 위한 집단조직의 형태가 갖추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삼성신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삼성은 벽랑국 3공주와 결혼을 한다. 벽랑국이 일본, 중국, 남해안의 작은 나라일지라도 탐라의 권력층이 국제결혼을 통해 농업 국가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벽랑국 3공주는 제주남성과 결혼한 첫 국제결혼이주여성임에 틀림없다.

탐라의 탄생신화는 제주의 이주 역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높은 문물을 지닌 고양부가 제주로 이주해 안착하고 있는 사실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 특히 삼성신화의 국제결혼은 2000년대 성별 역현상이 일어난 현재의 제주사회 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이 흥미롭다.

3) 고려의 몽골지배

1273년(원종 11) 원나라는 고려 삼별초의 4년 대몽항쟁을 고려연합군과 함께 끝내면서 제주를 직할하여 점유하게 된다. 제주를 직할로 점유하게 된 이유는 남송과 일본을 점령하려는 원나라의 정복전쟁에 기인한다. 따라서 원나라는 제주에 원군과 함께 고려군을 점령한 군이며, 치안유지 및 정복전쟁 준비태세를 갖추는 장소로 제주를 정하게 되며, 약 100년의 지배가 진행되게 된다. 100년의 시기 동안 잠깐의 기간은 고려로 제주를 복속시키게 되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원나라의 직접 통치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에 이뤄진 제주의 이주는 몽골인과 고려인이 동시에 군사 및 치안의 목적으로 진행되어 국내외 이주가 동시에 이뤄진 시기이다. 하지만 통치권이 원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국내 이주로 설명될 수 있는 고려군의 주둔에 따른 이주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당시 제주에 거주하고 있던 탐라인은 10,223명으로 기록되어 있다(김일우 2000, 94). 삼별초를 평정한 이후 원나라는 원나라 군사 5백 명과 고려군 1천 명을 제주에 주둔시키고 있었다(김일우 2000, 264). 2개월 이후 탐라국

초토사 실리백이 초토사로 부임하면서 원 군사 200명을 추가로 함께 제주로 입도하면서 주둔 병사는 1,700명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충렬왕 20년(1294년) 이전까지 원나라 군사가 최소한 1,400명이 주둔하였으며, 원나라 죄수 170명이 유배되어 있었다(김일우 2000, 310). 이와 더불어 목마장을 경영하는 몽골에서 직접 배치한 목호의 수는 정확하게 숫자로 나온 기록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374년(공민왕 23년) 고려군의 제주정벌로 몽골지배가 끝난 시기에 제주의 인구는 30,000명 내외에 이르고 있었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10, 72).

원나라 군사, 목호, 그리고 유배인이 제주 이주역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몽골인이 제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게 되면서 제주여성과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몽골남성과 제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제주인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3~4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10대 말과 20대 초에 이르면 하급 ‘하치’와 관리직에 등용되어 목마장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김일우 2000, 313). 이로서 몽골인, 몽골과 제주인의 가족들은 이들로 구성된 부락까지 조성하여 제주에 거주하였고, 더욱이 제주인은 이 당시 고려보다는 몽골 세력에 더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원나라에 대한 체제인식이 내면화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김일우 2000, 344). 결국 김일우(2000, 314)에 따르면 “원은 탐라지배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탐라 내부사회에서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에 틀림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역사적 기록으로는 제주에 거주했던 성씨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라에는 조선 초기까지 원을 본관으로 삼은 조(趙), 이(李), 석(石), 초(肖), 강(姜), 정(鄭), 장(張), 송(宋), 주(周), 진(秦) 등과 아울러, 명이 유배 보냈던 원 왕족과 그 후예로서 양(梁), 안(安), 강(姜), 대(對) 등의 성씨를 지닌 주민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김일우 2000, 375).

공민왕은 명나라의 제주 말(馬) 2,000필을 바치라는 명령과 제주 목호들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탐라 평정을 결정하고 문하찬성사 최영으로 하여금 전함 314척과 고려군 25,605명과 함께 1374년 7월 23일 탐라 정벌을 명령하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 몽골 세력과 제주인은 고려의 공격을 막아내고, 계속해서 제주 현존 사회체계를 유지하여 살아가려는 의식이 팽배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김일우 2000, 362; 윤용혁 2011, 100). 하지만

고려군의 총력전에 제주는 함락되어 평정이 되었고, 몽골 세력은 제주에서의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제주인 역시 고려군과의 전쟁으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고려의 제주정벌은 단순히 제주도에서 원의 말초 세력만을 제거하려는 수준이 아니었다(윤용혁 2011, 102). 이는 몽골의 100년 지배를 통해 제주인 역시 몽골화되어 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는 삼별초를 진압할 당시 여몽연합군보다 2배에 미치는 고려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에서 입증된다.

고려의 제주평정은 제주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몽골 세력의 붕괴는 몽골인 뿐만 아니라 몽골남성과 제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그 후예들에 대한 탄압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한족 중심의 동아시아지배 질서론을 받아들여 한족을 중국지배의 정통인 화(華)로 간주하고, 한족 이외에 다른 종족은 오랑캐로 보는 명분론적 화이론(華夷論)의 확산 등에 대응해 진행되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김일우 2000, 376). 다시 말해 몽골 관련 제주인은 오랑캐와 같은 낙인을 찍히게 되고, 제주인은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왔던 이웃과 강한 배척의 의식을 반강제적으로 내면화해야만 했다.

4) 조선시대

조선시대 제주에서 진행된 이주역사는 국내 이주가 대표적이다. 고려 말은 몽골 이주 문제를 통한 많은 시련의 장소였다면 조선시대는 외국과의 이주를 통한 변화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지만 특히 도내로 유입되는 유배인과 도외로 유출되는 제주인의 이주가 형성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만 약 2백여 명이 제주에 유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왕족부터 중앙정계 및 명문 후손들로 구성된 유배인들은 당대 조선사회의 주요 구성원들로서 대부분 반란 및 반역을 꾀하는 중범죄인의 신분으로 제주에 귀향을 오게 되었다. 제주의 상층민인 양반과 중민 그리고 제주에 파견된 중앙관료들은 이들 유배인들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배인들은 그들의 성리학적 학문과 재량을 베풀었고 제주 사회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유배인들의 성별은 남성이었고,

원칙적으로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안일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제주여성과의 관계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유배인들은 제주 양반 및 중인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유배인과 제주여성과의 연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회자되고 있다.

조선시대 제주이주에 관해 주목해야 할 점은 유배인에 의한 제주유입 문제가 아니라 제주인의 제주유출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시대 제주는 지속해서 흉작이 발생하여 기근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왜구의 침입으로 해안가 마을은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이와 더불어 중앙과 지방정부가 요구하는 공납이 과다했고, 관리의 수탈도 상당했다. 이로 인해 제주민이 제주에 살기 위해서는 해적질을 하거나 제주를 떠나야만 했다. 전라도 강진에는 두 모악인(제주인)이 자주 활보하고, 제주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여성이 해안가에 보초를 서야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인조 7년(1629년)부터 순조 말(1834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제주에는 ‘출륙금지령’이 선포되고 육지인과의 혼인도 금지되는 제도가 진행된다(박용후 1976, 176). 이로서 제주인은 해안 근간에서의 어업 활동만을 허가받게 되고, 제주의 감옥 섬에 완전히 고립되어 생활하게 되면서 편협한 성격이 내제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²⁾ 결국 제주사회는 중앙정부의 강제에 의해 인구 유출입이 완전히 봉쇄당하는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게 되며, 이에 따른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사고의식이 고립된 상황에 맞게 내면화하게 된다.

5)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 제주사회의 국내외 이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개 시기별(강동식 외 2009, 15~16)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제1시기는 1910년~1924년까지로 일제 통치제도가 제주사회에 설치되어 치안 및 상권을 확보하는 시기이다. 제주사회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일제 관료들이 이주해 왔으며, 제주 경제권을 주도하기 위해 근대적 기업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역시 일본인의 제주도 유입이 진행된다. 이 시

2) 요즘 제주 이주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표류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에 제주도로 유입된 일본인은 연도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약 700~9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69). 이영훈(1989, 9)에 따르면 1916년 제주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840명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밖에 이들은 제주도 치안과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주로 유입됐었지만 얼마나 제주에 거주하며 살았고, 결혼 및 자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지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왜구의 잦은 침입 그리고 출륙금지령으로 국내외와의 교류가 적은 관계로 제주인들은 이들 일본 통치자들과의 관계가 그리 안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1시기에 3·1운동보다 일찍 항일운동이 범정사에서 일어났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고립된 섬 지역에서 3·1운동에 동참하는 조천 만세동산(미뫼동산)의 만세 및 항일운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일본인에 대한 제주인의 모습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인의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해 제주인은 도일을 하게 되는 첫 시기를 맞게 된다. “주로 제주 어업 종사자들이 각종 통어선에 편승하여 일본의 어업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한 어로 견습을 다녀오던 시기로 대략 1백 명 정도가 해당된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 공업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자 일본 내부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이를 식민지 지역인 한반도에서 보충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오사카(大阪) 방적공장이 제주도내 노동자들을 모집하게 되고 이에 제주시민들이 응모하여 오사카로 건너가게 된다”(진관훈 2004, 135). 진관훈(2004, 136)에 따르면 1923년 제주-오사카 간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14,278명(2년 전에 비하여 2배)이 일본으로 진출하였다고 한다.

제2시기는 1925년~1937년까지로 제주인이 일본으로 노동이주의 붐이 일어난 기간임과 동시에 일제강점기 동안 가장 많은 일본인이 제주로 유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일본인 제주유입은 연도별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약 1,100~1,500명이 제주에 거주하며 생활하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69). 이영훈(1989, 10)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한 일본인은 1926년 1,083명 그리고 1936년 1,414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시기에 일본은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게 되며, 기업들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임금의 제주도 노동자를 유입하게 된다. 또한

제주-오사카 간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제주도내 주요 항구를 순회적으로 기항하며 제주도 저임금노동자를 일본으로 수송하게 된다. “이 때는 누구나 3엔이면 용이하게 승선 2~3일 후 목적지인 일본에 상륙하여 그곳 선배, 공제회의 마중과 소개로 일본에서의 취직이 가능하였다”(진관훈 2004, 136). 1929년에 도항자는 20,418명, 1933년에는 29,208명이었으며, 1934년에는 50,000명으로 당시 제주도 인구의 25%가 일본으로의 대이주가 발생하고 있다(진관훈 2004, 136~137). 이와 더불어 1933년 “1월부터 1934년 4월까지 도항 출원자 120,702명 가운데 70%가 도항 허가를 받지 못했다”(진관훈 2004, 137)는 점에서 불법이주가 성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농사기일과 노동기일에 맞추어서 계절에 따라 동일인이 제주와 일본을 왕래하는 이주가 성행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제3기는 1938년~1945년까지로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위한 전시체계의 시기로서 제주도 사람들을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던 시기임과 동시에 결7호 작전으로 많은 일본인이 제주로 유입되던 시기이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제주는 육지부와 동일하게 극심한 공출, 강제동원, 징병 및 징용을 당해야 했다. 청장년층의 대부분은 일본의 전시체계 일원으로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지역으로 국내외의 이주를 강요받게 되었고, 이후 제주로 귀환하지 못하는 제주인도 부지기수였다. 또한 이영훈(1989, 10)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기존에 제주로 유입된 일반 일본인이 1,357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7만 5천명의 일본군이 제주에 주둔하면서 결7호 작전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 가장 많은 일본인이 제주에 유입된 시기가 제3기임을 알 수 있다.

6) 미군정과 6·25

해방과 더불어 한국은 미군정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된다. 제주도 역시 제58군 사령부(전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 1945년 9월 28일 미군 항복 접수팀(그린 대령)이 일본군 제58군 사령관(도야마 노보루 중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은 이후 제주주둔 일본군은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일본군이 물러난 제주도는 1945년 11월 9일부터 제59군 정중대에 의해 관리가 시작된다.

“제주 진주 시점의 병력은 장교 7명, 사병 40명 등 47명으로 구성되었다. 중대 병력은 계속 늘어나 1947년 1월에 장교 11명, 사병 63명 등 74명으로 증원되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82). 또한 일본 노동자로 나갔던 제주인들이 귀환을 하게 되며, 1945년 8월 15일 제주도 인구는 일본군을 제외하고 2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다음해 제주 인구는 28만 명으로 증가하여 약 6만 명의 제주인이 일본에서 귀환하고 있음이 추정된다(제주 4·3사건진상보고서 2003, 68).

제주도 이주에 관한 미군정기의 주요 초점은 1948년에 발생한 4·3이다. 4·3 발발 이전부터 미6사단 20연대(브라운 대령)와 더불어 군경 및 이북5도 출신들이 육지에서 제주로 강압적 질서안정 유지의 목적으로 이주하게 된다. 1947년 3월 1일 시위가 일어난 후 제주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타도 출신 경찰관이 입도된다. 특히 철도경찰과 이북출신이 많았는데 4·3의 발발 직후 제주경찰 병력은 2,000명에 이르게 되고 이 중 75%(1,500명)가 타도 출신 경찰관이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87). “당시 서청 중앙단장을 지낸 문봉제는 잡지『북한』과의 인터뷰에서 ‘4·3사건이 나자마자 조병옥 경무부장이 나를 불러 반공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 500명을 보내달라기에 보낸 적이 있다’고 서청단원의 증파를 증언한 바 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188). 여기에 제주사회에서 5·10선거가 무산되자 5월 20일경 미6사단 제20연대가 제주로 파견되지만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점차 철수되어간다. 하지만 4·3이 더욱 가열되자 군인과 응원 경찰력이 제주로 많은 수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다. 1948년 8월 29일에 800명의 응원경찰이 유입되고, 또 다시 증파되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260). 1949년 유재홍 대령이 이끄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에는 4월 1일자로 군인 2,622명이 소속되고 있다(제주4·3사건진상보고서 2003, 320). 한국 군인들은 6·25 발발과 4·3의 종결에 따라 육지부로 다시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황석규(1985, 36)의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북5도 출신 이주민은 서북청년단과 6·25에 의한 이주동기를 지니는데, 6·25 이후 남한지역의 피난민들은 자신의 연고지로 귀환이동이 일어났지만, 북한은 연고지가 공산화되어 제주를 정착지로 선택하게 되며, 1985년에 이북 5도 출신 이주민의 수는 4,132명으로 황해도(1,064명), 평안남도(907

명), 평안북도(993명), 함경남도(748명) 그리고 함경북도(420명) 등에 이른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북한은 남침을 시작하고, 전쟁 발발 두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들어온다. 낙동강 전선만을 남겨둔 한국군은 최남단 제주도 모슬포지역에 훈련소를 설치하여 전선으로 나갈 훈련병 양성을 고려한다. 1950년 8월 22일 제주훈련소(소장 대리 김병찬 대위)가 창설되었고, 1951년 1월 경북 대구의 제25 교육연대가 모슬포로 이동하면서 육군 제1훈련소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동년 3월 21일 동일 장소에서 대한민국 육군 첫 훈련소가 정식 출범하게 된다. 육군 제1훈련소는 육군의 단일 신병 훈련소로 제주도 모슬포에 설치됐으며, 교육연대 8개 대대, 하사관 학교 1개교, 교도연대 2개 연대, 미군 고문관(100명)이 배치된 데 이어 지원 부대인 수송대, 헌병대, 통신대, 급양생산대, 군악대, 군예대, 의무대인 육군 제98병원 등이 주둔했다. 육군 제1훈련소는 창설된 후 1955년 4월 30일까지 보병의 기초교육을 마치고 배출된 훈련병의 총수는 약 50만 명이며, 그 중 하사관 교육 수료자는 38,745명, 자동차 운전교육 수료자는 7,355명에 달하고 있다. 훈련병들은 창설 시에 1일 500명 정도 입소하였지만 전방에서 전투가 한창 치열하였을 때는 동시에 8만 명의 병력이 입소한 시기도 있었다. 육군 제1훈련소는 최고 병력 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거대한 군사 천막도시를 형성했으며 1955년 12월 31일 해체될 때까지 5년 동안 모슬포를 중심으로 군인을 양성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08, 135~137).

제주지역은 모슬포지역의 육군 제1훈련소와 더불어 육지 피난민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지역으로 변모한다. 얼마나 많은 피난민이 제주에서 이주 생활을 영위했는지는 통계적으로 파악하기가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1955년 국세조사는 현재 인구 원칙에 의하여 군인 등의 특별조사구 인구를 부대 소재지에서 집계하였다”(이창기 1999, 38). 1955년 제주도 인구는 육군 제1훈련소 장병들과 잔류 피난민이 포함되고 있다. “1955년의 정상적인 제주도 상주인구는 약 250,000명 전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시 제주도 인구를 250,000명으로 본다면 1955년 국세조사의 제주도 인구에 포함된 비상주인구(군인 및 일시 잔류 피난민)는 38,800명 정도가 된다.”(이창기 1999, 39).

4·3과 6·25를 통해 국내외 이주를 경험한 제주사회는 많은 피해가 발생함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연속선상에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지니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제주시민들에게 미국과의 관계가 강하게 각인시키는 것을 교육받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7) 관광개발과 국내 이주

1970년대 제주도는 가장 강력한 국내 이주의 봄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형성되던 시기였다. 제주도 관광개발의 틀이 이 시기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주민들은 제주시를 거점지역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1960년 센서스의 출생지별 토착 인구에 관한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에 출생지를 두고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제주도 총 인구의 약 95%이고, 타도에 출생지를 가지면서 제주도에 상주하고 있는 인구는 5% 밖에 되지 않았으나(고갑석·최영희 1966), 이들 인구 대부분이 제주시에 상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에 의한 제주도의 인구 성장은 1970년대 이후 제주도 관광사업 개발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이주민의 제주시 선호에 따라 제주시 인구가 제주도내 여타 지역에 비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제주도 이주민들의 제주시 선호 경향은 제주시가 제주도의 여타 지역보다 생활 기회가 확대, 개방되어 있는 점에 기인한다. 이들 육지부에서 제주시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의 1, 2세대를 합쳐 인구수는 약 9만 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반을 점유하고 있으며, 육지부 이주민의 도별 순위는 전라도, 서울, 경기도, 경상도 순이다(황석규 1985, 28~29).

제주로 이주한 육지부 이주민들은 크게 3개 부류로 구분되어 생활하였다. 6·25와 이어지면서 전라도 이주민들이 생활하던 제주비행장 근처의 용마부락에는 전라도 이주민들이 제주시 중심부로 이동을 한 자리에 경상도와 경기도 출신 이주민들이 자리하여 생활 터전을 마련한다. 이와 반대되는 지역인 제주시 부둣가 윗동네인 해남촌은 몇 해 동안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워진 전라도 해남 출신들이 부두노동을 하기 위해 제주에 유입되며 만들어진 마을이다. 따라서 해남촌은 대부분 해남 출신과 전라도 출신 그리고 소수의 여타 국내 이주민들이 거주하며 빈민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

리고 마지막 부류는 제주에서의 거주 기간이 많거나 육지부에서 교육수준이 높아 관광개발 사업을 희망하거나 제주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상층 이주민이 제주시 중심부에서 제주인들과 융합하여 생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제주인들과 상생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던 관계로 이들 육지부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출신지역의 이주민들과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자신들 스스로 제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치 및 경제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제주시 인구의 절반인 9만 명은 제주도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1970~80년대는 제주도에서 육지부 이주민의 인구 반란인 셈이고, 현재 제주도 인구의 많은 부분이 이들 이주민과 그들 4세대에 이르는 인구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로부터 제주 토박이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3세대 이상 제주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이주민은 제주 토박이로 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결국 1970~80년대 제주에 유입된 많은 육지부 이주민들은 그들 스스로 제주 정착을 위한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활동을 하여 왔고, 제주 토박이라는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점차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정치 및 경제적 영향을 지대하게 끼쳐오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민들은 이 시기에 생활력이 강한 국내 이주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을 내제하면서 배타적 성격이 더욱 강하게 자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8)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여성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놓이면서 새로운 이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이주민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 강한 바람처럼 제주에 급습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9년까지 전년도 대비 20% 이상의 증가를 보여주다가 2010년이 들어오면서 증가 폭이 좁아졌으나, 2011년 이후 외국인 실제 유입 수치는 거의 유사하게 2천명

이상이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도민 전체 인구의 0.5%(제주 561,695명, 외국인 2,645명), 2009년에는 1.2%(제주 567,913명, 외국인 6,944명), 2011년에는 1.5%(제주 583,284명, 외국인 8,499명) 그리고 2014년에는 도민 전체 인구의 2.6%(제주 607,346명, 외국인 15,568명)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1차 산업에 종사자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 유입 열풍이 계속될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10년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제주사회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제주지역 국제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201명에서 2009년 1,444명, 2010년 1,609명, 2011년 2,007명, 2012년 2,158명, 2013년 2,423명 그리고 2014년 2,69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200명 정도의 증가를 보이다가 2011년 거의 400명 이상 전년대비 24.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며, 국제결혼이주민 2,000명 이상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전과 유사하게 200명 이상의 증가세로 회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여타 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이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제주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에서의 호응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제주는 환경이 좋고, 특히 다른 한국의 여타 농촌지역보다 제주의 농촌사회는 제주시와 인접하여 있으며, 생활면에서도 도시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음으로 외국인 결혼대상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을 짐작하게 한다.

국제결혼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순이며, 이들 4개 국가의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2,256명으로 전체 국제결혼이민자의 83.7%를 차지하며,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다. 이들 4개 국가의 국제결혼이민자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계속 높은 증가수치를 차지하고 있어 몇 년 후 중국(재중동포 포함)여성과의 국제결혼의 수를 넘어설 확률이 확실하다. 국제결혼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과 미국과의 국제결혼의 수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으며, 남부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여

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 네팔,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국가, 미국, 일본과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루던 제주지역은 현재 점차 남부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캐나다 및 유럽국가와의 국제결혼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정광중 외 2012, 176).

제주에 새롭게 시작된 외국인 유입 열풍은 국내 이주의 성격과 성별 역 현상으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이주 현상으로 보이면서 미래 제주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의 안전망에 대한 보안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9) 국내 이주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 2위는 제주라고 한다. 고려와 조선시대 유배지로서 한번 오면 다시 육지 돌아갈 기약이 없던 섬이 현재는 가장 살고 싶은 도시가 되었다. 1970~80년대 국내 이주의 붐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통계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2010년 제주도내 국내 이주는 437명이었다. 하지만 2011년 2,343명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 주더니 2012년 4,876명, 2013년 7,823명으로 급증하고, 급기야는 2014년 11,112명으로 1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매달 1,000명의 국내 이주 기록을 낳고 있다. 2015년은 13,000명의 국내 이주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이다.

한편 1970~80년대 국내 이주의 이유는 경제에 국한하여 이주가 일어났다면, 현재 일어나는 이주는 경제와 문화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직업을 은퇴하여 건강의 이유로 이주하는 경우보다 젊은 층의 귀농과 서비스업을 추구하고 이와 더불어 생활의 편리성 및 자녀교육에 이르는 이유가 이주에 담겨있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1인 가구의 이주보다는 가족 전체가 이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이주인 경우 귀환 이주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4인 가구의 이주는 제주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목적이 강하다. 결국 4인 가족 전체가 제주로 이주하여 아름다운 섬에서 여유로운 삶과 전원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인 셈이다.

1970~80년대 국내 이주와 또 다른 현상은 오늘날 국내 이주자들이 제주시 중심권을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제주도 해안가와 중산간 마을로 산재하여 분포하면서 생활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다. 오히려 자연환경이 좋고, 토지비용이 저렴하면서 농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환경에서 생활비용을 벌 수 있는 장소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육지부 이주민들은 제주와 함께 융합하고 상생하려는 생활보다는 자신들의 도시 생활에서 힘들었던 삶을 제주에서 보상받으려는 모습에서 제주에서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육지부 이주민들이 제주에 내려온 시기는 불과 5년이다. 5년 내에 농촌에서 원하는 수확을 얻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며, 서비스업의 창업도 5년 내 정상적인 사업장을 지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5년 기간도 정상적인 생활비를 벌지 못하거나 1~4년 안에 이주한 이주민은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육지부에서 이주할 때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면 제주에서의 생활 자체가 어려워 다시 귀환 이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제주사회는 부동산 급등의 문제에 휘말리면서 이는 국내 이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자본, 국내 자본가의 투기, 국내 이주로 인하여 토지가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다. 국내 이주민들이 제주로 이주할 때 전원주택, 농경지, 창업부지 등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였을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만 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주시민과의 융합에 있다. 육지부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고 아주 조용하고 여유로운 정원생활을 생각하며 이주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다. 그러나 제주 농어촌사람들은 마을의 공동생활에 피해가 되지 말아야 하길 원한다. 마을 회합이나 마을 공동체(청년회, 어촌계 등) 및 마을 행사에 참여하면 좋지만 이런 사회 참여를 원하기 보다는 마을 구성원으로서 공동으로 납부하는 회비를 내고, 도로와 해변을 함께 청소하는 정도이다.

2. 국내의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

제주의 역사는 국내의 이주의 역사이며, 지금부터 약 4만 년 전부터 현재에는 9단계의 큰 이주의 열풍을 만났다. 특히 2000년 이전까지 제주의 이주역사는 제주역사의 아픈 현장과 함께하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국내의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었고, 이는 제주시민의 의식으로 내면화하게 되었다.

2000년 이전까지 제주지역 국내의 이주(immigration)역사의 특징은 이주민들이 제주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봉건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몽골의 100년 지배는 제주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흔적은 유무형적 문화유산으로 여러 곳에 남겨져 있다. 조선시대에 가장 중죄를 지은 죄인들의 유배지인 제주도는 유배를 온 사람들이 남긴 여러 문화유산들이 산재되었고, 200년 동안의 출륙금지령은 제주 사람들을 고립시켰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제주인은 극심한 공출, 강제동원, 징병 및 징용을 당해야 했고, 일제강점기 말기에는 7만 명 이상의 일본군이 제주에 주둔하면서 결7호 작전을 진행하였고, 만일 미군이 공격하였다면 20만 명 이상이 살상된 오키나와 전투처럼 제주인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었다(塚崎昌之 2004, 273).

현대에 들어오면서 제주는 냉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4·3사건과 6·25를 통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고, 군인, 경찰, 피난민들을 통한 국내의 이주가 이뤄졌다. 또한 한국이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제주는 국내 이주의 봄을 맞게 되었다. 특히 관광산업을 근거로 항만산업, 영세한 2차 산업의 형성 그리고 3차 산업이 성행하면서 전라도 및 여타 다른 지역 이주민들이 제주에 들어와 촌락을 형성하고 노동과 사업을 전개하였다(황석규 1985). 육지부에 저소득층이었거나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내 이주민들은 노동과 사업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제주의 중상층으로 빠르게 흡수되었다.

제주 이주역사에서 삼별초의 유입 그리고 몽골의 100년 지배, 조선의 유배인, 일제강점기 일본인과 일본군, 해방기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심지어 1960~70년대 육지부 이주민들 모두 제주인의 동의를 구함 없이 유입되었

고, 오히려 이들 이주민들은 자신들에게는 자율적이었으며, 제주인에 대해서는 강제적이었다. 즉, 그들은 민족국가의 강력한 폭력 의지를 지니고 유입되어 제주인들에게 강제적이었으며, 1960~70년대 육지부 이주민들 역시도 개인 사정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주지역에 유입되었다. 따라서 제주인은 제주지역에 유입되는 이주민에 대해 수동적이었고,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이들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되었다. 결국 1980년대까지 제주인은 제주에 유입한 국내외 이주민들과 상생하고 융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로서 제주인들은 생활환경에서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의식체계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다(황석규 2009, 374~375).

제주역사를 통해 내면화된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세 가지로 구분된 집단 의식은 베버가 사회적 행위를 해석하고자 고안한 행위 유형의 주관적 의미³⁾와 연관하면서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로 구분하고자 한다.

1) 편협성

역사적 사건들은 사회관계로 야기되는 사회 현상이며, 앞으로의 상황적 요건을 만들어내고, 인간행위를 제한 혹은 동기를 지우며, 일련의 성격을 형성하게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행위를 통한 사회관계를 지속하게 한다. 제주의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제주인들은 자신들의 성격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제주인의 성격 중 하나로서 편협성은 전통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 성격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편협성의 개념은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되는데 일련의 종교가 자신의 종교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관계한다.

하지만 제주인의 편협성은 국내외 이주민들에 대한 우월성보다는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내면화된 성질이다. 전통적으로 외지인(국내외 이주민)들은 제주인의 동의 없이 제주에 이주하며 제주인에 대해 많은 피해를 주었다. 여러 차례 제주인이 원하지 않은 전쟁 속에 휘말려 많은 제주인은 전

3) 베버는 사회적 행위를 전통적, 감정적, 목적 합리적, 가치 합리적 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사하여야 했고, 중앙정부의 수탈과 관리로부터의 압박을 치러야 했으며, 여러 차례의 식민지 통치하에 많은 수탈과 희생이 강요되었고, 냉전이란 이념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런 아픈 역사 속에서 생활하여 내려온 제주인은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이로 인해 제주인은 외지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확대되는 경향도 보이곤 했다. 하지만 제주인의 편협성은 제주인이 우월하여 타 지역의 주민들을 밀쳐내는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다. 이는 적대감을 지니면 더욱 큰 피해를 불러온다는 것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인의 편협성은 외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그들과 거리를 두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제주인은 점차 도량이 작아지고, 제주인(토박이) 내부에서도 큰 권력에 치우치려는 성질을 지니게 된 것이다.

제주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제주라는 섬에서 고립되어 생활했다. 육지 지역으로의 이동에 제동이 걸리면서부터는 육지는 한편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동경심과 더불어 육지로부터의 소외감을 지니게 하였다. 육지는 쉽게 가지 못하는 지역이며 또한 제주는 육지로부터 주변의 한 부분이라는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육지는 제주를 단지 주변으로 인식하였고, 제주인은 육지인에 대한 이질감이 확대되면서 쉽게 다가가 의사소통을 하려는 의지 역시 약해졌다. 의사소통의 단절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편협성은 오늘날도 지속되어 제주인은 쉽게 외지인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 제주인은 외지인을 처음 대면하면 회피하여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어렵다. 일정 기간 소통이 진행되어야만 외지인은 제주인과 의사소통이 진행된다. 그래서 오히려 외지인이 제주인에 대해 야박하다는 감정을 지닐 수도 있다.

결국 제주의 이주역사는 제주인에게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편협성을 지니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외지인과의 의사소통에 거리감을 지니게 하였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동양식이 자리하게 되었다.

2) 배타성

제주인은 국내외 이주민에 대해 목적 합리적으로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제주인이 소유해야 할 자산들이 그들로 하여금 강탈당한다는 감정이입에 의해 그들에 대한 경계심과 배제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신행철 2004; 황석규 1985 등). 사적 이익의 극단적 추구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우리’와 ‘타자’와의 경계는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로 인한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타자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받으며 ‘우리’가 아닌 경우 폭력과 억압의 대상으로 간주한다. 제주에서 이런 성질은 1970~80년대에서 선명하게 나타난다. 약착같이 경제적 이익에 열정적인 육지부 이주민들의 모습을 지켜본 제주인들은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었으며, ‘외지 것, 전라도 것’이라는 비아냥스런 말투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황석규 1985).

이로 인해 제주인은 유입되는 이주민들에 대해 문을 개방하려 하지 않는 배타성을 지니게 되었다. 제주인이 국내에서 유입되는 이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항시 경계심을 지니고 살아온 경험은 지금도 상당부분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4년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고 있다. 그 당시 시정자문위원, 평화통일자문위원 및 영남친목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K씨에 따르면 “올해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기는 하였지만 위촉을 받을 당시에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지금까지 (제주인은) 이주민들에게는 이런 시행자문기관에 참여를 억제하여 왔고 심지어 시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에서도 이주민들을 고용하는데 기피현상을 보인다.” 고 주장하고 있다(황석규 1985, 50). 따라서 이 시기에 유입된 국내 이주민들은 자신의 출신지역 사람들과 함께 자발적 결사체를 결성하여 제주지역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국내 이주민들은 제주인의 배타성에 맞서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여 제주지역에서 생활하려는 의지를 지니게 되었다. 전라도 자발적 결사체의 총무에 따르면 “호남동지회의 취지는 전라도민간의 친선과 회원 간의 상부상조를 통하여 제주에서 수월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황석규 1985, 48). 이렇게 결성된 영·호남동지회는 지금까지도 제주에서 정치적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강력한 영향력을 표출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작용하고 있다.

3) 선택적 차별주의

선택은 개인이 결정하는 일일 수도 있으나, 제도를 통해서 가치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선택이 존재한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선택은 한국의 교육제도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 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해방과 6·25를 경험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선택은 이데올로기적 우방과 관련하여 분명하게 구분되었다. 이로써 한국인은 한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한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와 그 상반된 국가는 극명하게 구분하게 되었다. 미국은 가장 우호적인 형제국가이며, 미국은 백인이 주도하는 국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선택적 차별주의는 교육을 통해 세대를 이으며 지속되었다. 선택적 차별주의의 교육환경 속에 자라난 세대들은 다른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렵게 된다.

제주인은 역시 한국인들이 지닌 단일민족이란 가치 보편적 특성으로 외국인에 대한 선택적 차별주의를 지니고 있다(김현선 2006; 박병섭 2006; 박수미 외 2006; 장태환 2001 등). 제주인들도 백인은 우월하고,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가난하고 게으르며 낮은 교육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차별의식을 내면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주인들은 국가별에 따른 선택적 차별주의 역시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국가에 비해 일본은 낮고, 중국은 그보다 낮고, 그리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순으로 생활수준을 낮게 보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제주인은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를 비교하며 상대하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도 다른 모습으로 상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제주인은 다양한 국가 시민들을 제주인의 잣대를 사용하여 상대하는 외국인들 마다 모습을 다르게 하고 있다(황석규 2010, 217). 다시 말해 제주인은 피부색, 국가별 그리고 이주 집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하향 조절하는 선택적 차별주의를 내재하고 있다.

선택적 차별주의가 존속되는 지역에서의 이주민은 차별과 편견을 받고,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피부색이나 국가별에 따라 차별과 편견을 당하는 것은 위헌이 아닐 수가 있으나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처사로 간주

될 수 있다. 하지만 편견과 차별을 받는 이주민들은 ‘다문화’ 라는 꼬리표 혹은 낙인을 찍힐 수 있다. 이로써 이주민들은 낮은 자아 존재감을 지니게 되고 자성예언 효과(self-fulfilling prophecy)를 통해 이주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낮은 기대감과 사회참여에의 두려움을 지니게 된다.

3. 상징적 폭력과 성찰적 시민의식

1) 상징적 폭력

Slavoj Zizek(2011)은 폭력을 3개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주관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으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을 의미하며, 폭행, 강도, 강간 등의 범죄와 테러 등을 포함하는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한 폭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또한 객관적 폭력으로 두 종류의 폭력을 구분하면서, 객관적인 폭력에서 첫 번째 폭력은 일상의 정상상태에서 비폭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객관적인 폭력으로서 두 번째의 폭력을 구조적 폭력으로 언급하면서, 이는 제도적인 폭력으로서 정치 및 경제적 권력에 의한 폭력을 의미하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국가기관의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폭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객관적 폭력으로서 세 번째의 상징적 폭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형태의 폭력으로서 언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을 일컫고 있다.

Bernstein, B.(1972)는 영국의 언어사회학자로서 계층에 따라 언어구사 방식이 다름을 강조하면서, 상류층은 언어사용 환경에 맞는 정교하고 문법이 잘 정리된 공식 언어를 사용하고, 하류층은 아주 간결하고 문법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은 상류층이 사용하는 공식 언어를 채택하여 운영됨으로써 하류층 자녀들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학업 성취에 저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번스타인은 학교에서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하류층 학생들에 대한 상징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Bourdieu, P.(1982)는 자신의 저서 『구별 짓기』에서 상징적 폭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의 기본질서는 지배계급의 물질적 및 물리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징적 자본을 통해 자행되는 상징적 폭력에 의한 결과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언어, 신분, 지위, 관습 등과 같은 상징적 자본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내면화하여 나타나는 성질을 지배계급의 아비투스(habitus)라고 하며, 이는 곧 그들의 사고방식 및 지배유형을 의미한다. 지배계급은 그들의 지닌 아비투스를 일상 및 학교생활에서 적용하여 피지배계급이 자연스럽게 사회질서 유지를 이어가도록 사용하는 폭력을 상징적 폭력이라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인의 편협성에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이주민을 배타하는 성질 및 가치지향적인 선택적 차별주의에서 타자(외국인)와의 경계심으로 유발되는 상징적 폭력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배집단의 우월성이 아닌 제주의 아픈 역사 속에 살아오면서 다양성 및 다원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류집단의 성격으로서 비주류집단에 대한 이질감, 편협성 및 배타성으로 야기되는 언어 및 상징으로 행사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다원화되지 않는 고정관념들 즉, 편견, 차별, 배타성 등을 지닌 집단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까지도 제주지역의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견뎌야만 했다. 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역시 배척당하였으며, 장애인 가족도 자신의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며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또한 이웃사람들은 장애인집에 대해 수군거리며, 장애인 개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넘어 가족 전체에 대한 차별로 이어졌다. 이는 비장애인 집단들에 의한 실질적 물리적 혹은 제도적 폭력이 아닌 상징적 폭력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제주인의 상징적 폭력성은 번스타인과 브르디외가 주장하는 상징적 폭력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제주인의 상징적 폭력성은 제주 주류집단이 이주역사를 통해 내제화된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의 성격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야기되는 비물리적인 상징적 폭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지 국제결혼이주여성

라는 자체만으로 의사소통에서 하대를 받거나 소외되고, 차별과 편견을 당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하는 폭력이다.

결국 제주의 이주역사를 통해 제주인은 편협성, 배타성 및 선택적 차별주의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는 주류집단의 주체가 되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제주생활 기간이 길어지고, 그들의 2, 3세대 자녀들이 제주지역에 살아가게 되면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제주인의 인식이 점차 변해 갈 수는 있지만 제주인의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의 성격은 현재에 명백하게 유지하며 상징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미래 제주사회에 비추어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제주인의 성격을 시급히 변화시켜야 할 숙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2) 성찰적 시민의식

제주사회는 현재 급속하게 이주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이주가 아닌 국제 이주민들이 제주에 유입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제주는 국제 이주민들에 대한 흡입력을 지닌 지역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제주의 국제 이주는 국제결혼으로 이뤄진 다문화가정, 어업과 축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이뤄지며 이주민의 수도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

이주역사의 변화에서 주요점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주지역 이주민들의 대부분은 제주인의 필요성에 의해 유입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1·3차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주지역 미혼 남자를 위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이에 속하며, 제주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고 유입되기를 희망하는 유학생들도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유입 현상은 점차 다양한 대륙과 국가들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제 제주지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은 제주사회와 제주인의 동의와 허락을 요청하는 이주 유입 사회로 변화하였고, 신국제분업에 의한 글로벌시대의 흐름 안에 제주로의 이주가 시작되는 역사의 장에 진입한 실정이다. 따

라서 제주인은 이주민에 대해 수동적이던 이전과는 다르게 제주인이 능동적으로 이주민을 대하는 사고와 행동이 이뤄지는 새로운 사회 변화를 요구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제주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해졌고, 지금부터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결국 제주지역 제주인들은 능동적으로 외국인과의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가려는 성찰적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황석규 2009, 399).

하지만 제주에서의 다문화정책과 실행계획은 중앙정부의 고민에서 출발하였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지는 않았다. 즉, 중앙정부의 다문화과정과 그 자녀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과 사업 시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지 수동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능동적으로 제주인과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한 고민과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황석규 2009, 382).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다문화 사업은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이 제주지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지만 제도적 온정주의(한건수 2003, 157)에 근거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외국인이며, 수동적인 존재라는 사고에 입각하여 다문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처럼 제도적 온정주의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돕는 다문화 사업으로 일관된다면 그들은 제주사회의 도민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동적인 이방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사회처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 확실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제주인은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자신들 자체의 다문화정책과 실천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방안으로 제주사회는 성찰적으로 제주인의 내면적 의식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주요한 사실은 제주인과 외국인이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가기 위해 우선 제주인의 의식에 존재하는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미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한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제주인들은 외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심 부족으로 일

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며,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인과 외지인들 모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지니게 된다. 제주인의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는 특히 민족적(national)·문화적(cultural)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과 그 자녀들에게 상징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어, 제주어, 제주사회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적응이 곤란함을 감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사업은 이들의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적 온정주의에 치중하면서 그들은 제주인들에게 소외되고, 사회적·경제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며, 마침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따라서 제주인과 다문화가정이 서로 상생하고 융합해 살아가기 위해서 제주인 스스로가 세계화의 시대에 걸 맞는 다원화되고 성찰적인 의식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새로운 다문화 사업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의 제주사회 적응을 돕는 전반적인 제도·교육·복지 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제주인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과 더불어 상생·융합할 수 있는 범세계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제주인들에게 세계인으로서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시급히 구상하고 실천을 해야만 하는 작업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경험한 과정들을 근거로 제주인들이 그들과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찰적 의식체계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Ⅲ.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교육 전문가 조사 분석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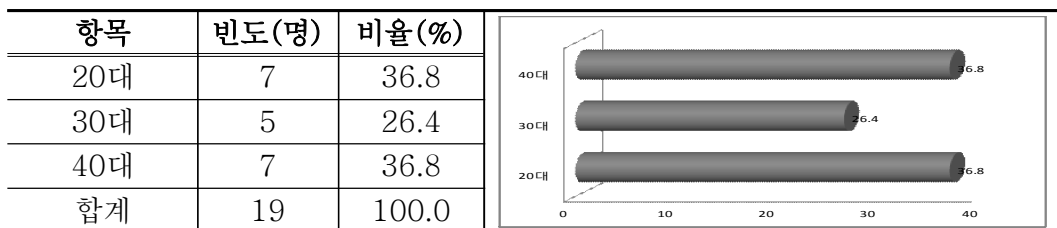
1) 일반적 특성

(1) 응답자

① 연령대별

○ <표 Ⅲ-1>은 연령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 비율이 각각 7명(36.8%)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5명(26.4%)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국제결혼은 국가별에 따라 결혼 연령기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결혼 연령기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필리핀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보다는 늦은 결혼 연령기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네팔에서는 20대 이전에 결혼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표 Ⅲ-1> 연령대별



② 학력별

○ <표 Ⅲ-2>는 학력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아서 8명(42.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초등

학교와 대학교가 각각 4명(21.1%), 중학교가 2명(10.5%), 전문학교가 1명(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학력별

항목	빈도(명)	비율(%)
초등학교	4	21.1
중학교	2	10.5
고등학교	8	42.1
전문학교	1	5.2
대학교	4	21.1
합계	19	100.0

③ 직업별

○ <표 III-3>은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 비율이 가장 높아서 5명(26.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회사원이 4명(21.0%), 강사(영어, 일본어, 다문화 등)가 3명(15.8%), 서비스업이 2명(10.5%), 관광가이드와 학생이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부분은 가정주부인 경우 출산준비 및 영아양육인 시기이거나 장애인 남편 보호 등의 이유로 나타나고 있으나, 가정 사정이 허락한다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재 직장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상향 조절을 위해 교육 및 정책적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II-3> 직업별

항목	빈도(명)	비율(%)
가정주부	5	26.3
회사원	4	21.0
강사	3	15.8
서비스업	2	10.5
관광가이드	1	5.3
학생	1	5.3
무응답	3	15.8
합계	19	100.0

④ 이주 시기별

○ <표 Ⅲ-4>은 이주 시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주 시기는 2011년 이후 이주한 사람이 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1~2005년이 6명(31.6%), 2006~2010년이 4명(21.1%), 2000년 이전이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 이주 시기별

항목	빈도(명)	비율(%)
2000년 이전	2	10.5
2001~2005년	6	31.6
2006~2010년	4	21.1
2011년 이후	7	36.8
합계	19	100.0

⑤ 국적 취득별

○ <표 Ⅲ-5>는 국적 취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국적은 취득자(7명, 36.8%)에 비해 아직 취득하지 않는 사람(12명, 63.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적취득은 제주생활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인으로서의 국적 취득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출신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 혜택으로 인해 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필리핀 출신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경제적 활동을 중시하며 국적을 취득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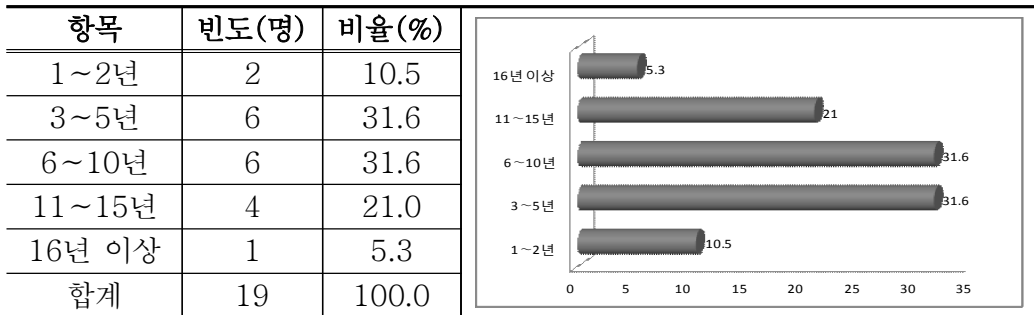
<표 Ⅲ-5> 국적 취득별

항목	빈도(명)	비율(%)
취득	7	36.8
미 취득	12	63.2
합계	19	100.0

⑥ 거주 기간별

○ <표 III-6>은 거주 기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거주 기간은 3~5년과 6~10년이 각각 6명(31.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1~15년이 4명(21.0%), 1~2년이 2명(10.5%), 16년 이상이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로 보면 거주 기간이 길수록 제주사회의 적응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한국어 능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통해 제주사회 이해도가 떨어지며 제주사회에 대한 적응력 역시 저하된 상태에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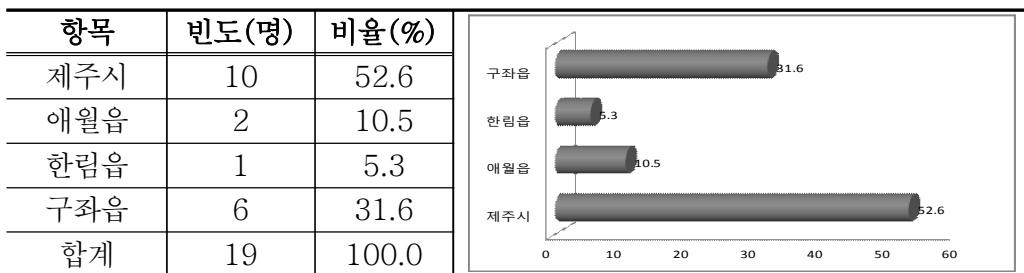
<표 III-6> 거주 기간별



⑦ 거주 지역별

○ <표 III-7>은 거주 지역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거주 지역은 도심권과 농촌지역을 균등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따라서 제주시가 10명(52.6%)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농촌지역으로 구좌읍이 6명(31.6%), 애월읍이 2명(10.5%), 한림읍이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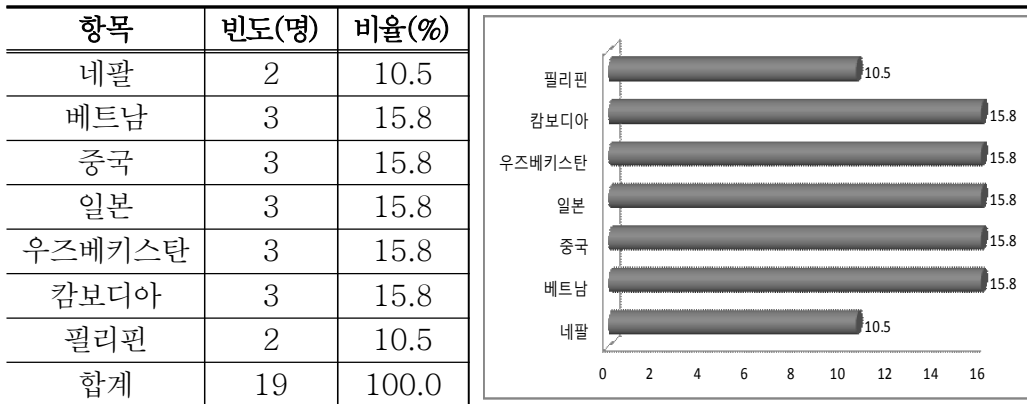
<표 III-7> 거주 지역별



⑧ 출신 국가별

○ <표 Ⅲ-8>은 출신 국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출신 국가는 제주지역에 유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분포와 비율적으로 균등하게 조사하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대부분의 국가가 3명(제주시가 10명(15.8%))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네팔, 필리핀이 각각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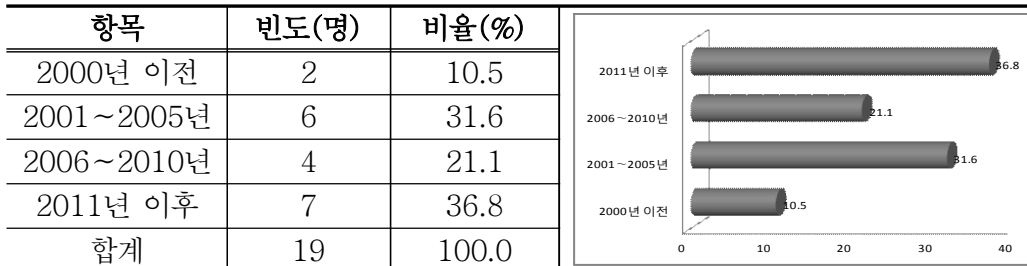
<표 Ⅲ-8> 출신 국가별



⑨ 결혼 시기별

○ <표 Ⅲ-9>는 결혼 시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시기는 2011년 이후가 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01~2005년이 6명(31.6%), 2006~2010년이 4명(21.1%), 2000년 이전이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9> 결혼 시기별



⑩ 결혼 동기별

○ <표 Ⅲ-10>은 결혼 동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동기는 결혼정보

업체가 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인이 5명(26.3%), 친인척과 종교단체가 각각 3명(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육지부의 국제결혼은 결혼정보업체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제주지역인 경우는 4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가 지인, 친인척 그리고 종교단체에 근거하여 국제결혼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모임을 수월하게 가질 수 있어서 제주사회에 적응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도 특히 캄보디아와 네팔인 경우 그들의 연결망을 통해 진행될 수 있었다.

〈표 III-10〉 결혼 동기별

항목	빈도(명)	비율(%)
지인	5	26.3
친인척	3	15.8
결혼정보업체	7	36.8
종교단체	3	15.8
기타	1	5.3
합계	19	100.0

② 자녀수별

○ 〈표 III-11〉은 자녀수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수는 1명과 2명이 각각 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4명이 3명(15.8%), 출산예정과 1명이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모두가 자녀출산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4명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도 15% 상회하고 있었다.

〈표 III-11〉 자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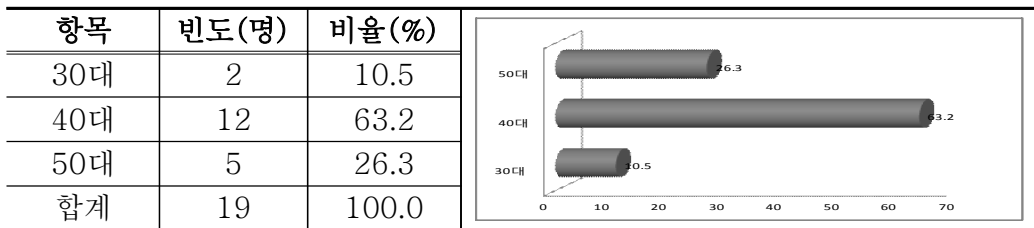
항목	빈도(명)	비율(%)
출산예정	1	5.3
1명	7	36.8
2명	7	36.8
3명	1	5.3
4명	3	15.8
합계	19	100.0

(2) 배우자

① 연령대별(배우자)

○ <표 Ⅲ-12>는 연령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 비율이 가장 높아서 12명(63.2%)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5명(26.3%), 30대가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남성이 국제결혼을 행하는 연령기는 30대 중반 이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40대에서 가장 많은 국제결혼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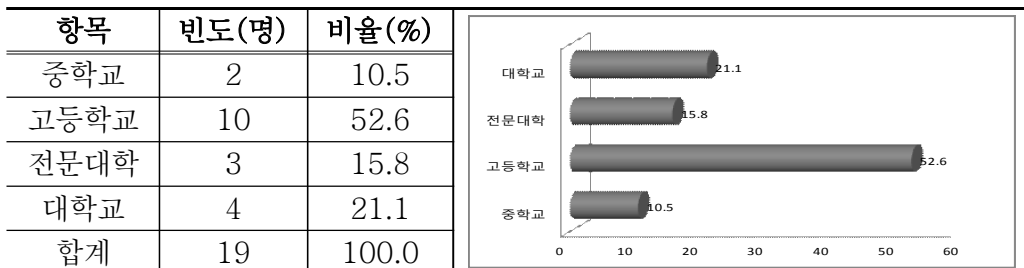
<표 Ⅲ-12> 연령대별(배우자)



② 학력별(배우자)

○ <표 Ⅲ-13>은 학력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비율이 가장 높아서 10명(52.6%)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학교가 4명(21.1%), 전문대학이 3명(15.8%), 중학교가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학력과 비교해서 한국 남성의 학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많은 수는 고등학교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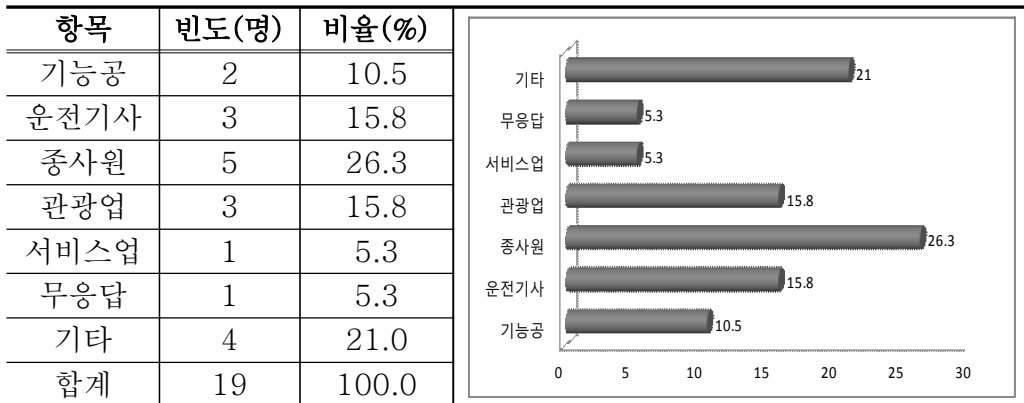
<표 Ⅲ-13> 학력별(배우자)



③ 직업별

○ <표 III-14>는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직업별로는 종사원(정비 업체, 목장, 양식장, 미용실, 제과점 근무 등) 비율이 가장 높아서 5명(26.3%)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농업, 노동자, 군인유공자, 자영업 등)가 4명(21.0%), 운전기사(화물, 버스, 학원 등)와 관광업(여행사, 관광가이드, 콘도 경영 등) 종사자가 각각 3명(15.8%), 기능공(가전제품 설치, 전기공사 등)이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로 보면 국제결혼을 진행한 한국남성은 제주사회에서 중하층에 속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한국남성인 경우에도 자신의 토지에서 농업을 종사하는 경우는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14> 직업별



④ 본적지별

○ <표 III-15>는 본적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본적지는 제주도가 10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라도가 4명(21.0%), 서울이 2명(10.5%), 부산과 충청도가 각각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출생 한국 남성이 50%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의 수치는 이주 배경을 지닌 제주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지부 이주민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맞이하는 이색적인 이주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Ⅲ-15〉 본적지별

항목	빈도(명)	비율(%)
서울	2	10.5
부산	1	5.3
충청도	1	5.3
전라도	4	21.0
제주도	10	52.6
무응답	1	5.3
합계	19	100.0

⑤ 시부모 생존여부

- 〈표 Ⅲ-16〉은 시부모 생존여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부모 생존 여부는 사망이 8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부모 생존이 6명(31.6%), 시모(계모 포함) 생존이 3명(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시부모 생존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시부모	6	31.6
시모(계모포함)	3	15.8
사망	8	42.1
무응답	2	10.5
합계	19	100.0

⑥ 형제자매

- 〈표 Ⅲ-17〉은 형제자매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형제자매는 5명 이상이 8명(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4명이 5명(26.3%), 2명이 2명(10.5%), 없는 경우가 1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 보면 시부모와의 갈등과 상징적 폭력보다는 남편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의사소통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표 III-17〉 형제자매

항목	빈도(명)	비율(%)
2명	2	10.5
3~4명	5	26.3
5명 이상	8	42.1
무	1	5.3
무응답	3	15.8
합계	19	100.0

2) 사회적응 특성

(1) 가정생활

① 남편과의 관계 정도

- 〈표 III-18〉은 남편과의 관계 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는 양호가 12명(63.1%)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잘 도와주지 않음, 싸우거나 욕을 하는 경우 등)이 6명(31.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30% 이상은 남편으로부터의 상징적 폭력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믿음과 신뢰 그리고 도움으로 제주생활에 만족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많은 것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8〉 남편과의 관계 정도

항목	빈도(명)	비율(%)
양호	12	63.1
보통	6	31.6
무응답	1	5.3
합계	19	100.0

② 시부모와의 관계 정도

- 〈표 III-19〉는 시부모와의 관계 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부모와의 관계는 양호한 편과 기타(사망 등)가 7명(36.8%)으로 가장 높았

으며, 다음으로 갈등 관계가 4명(21.1%), 심리적 거리감이 1명(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의 갈등이 26.4%로 나타나고 있어서 낮은 비율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과 편견이 시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상징적 폭력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9〉 시부모와의 관계 정도

항목	빈도(명)	비율(%)
양호한 편	7	36.8
갈등 관계	4	21.1
심리적 거리감	1	5.3
기타(사망 등)	7	36.8
합계	19	100.0

③ 시부모와의 동거 관계

○ 〈표 Ⅲ-20〉은 시부모와의 동거 관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시부모와의 동거 관계는 분가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각각 6명(31.6%)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기타(사망 등)가 5명(26.3%), 동거가 2명(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면 시부모 사망 비율이 높았고, 대부분 시부모와 분가해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부모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남편이 중개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계모로부터 상징적 폭력을 당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다.

〈표 Ⅲ-20〉 시부모와의 동거 관계

항목	빈도(명)	비율(%)
동거	2	10.5
분가	6	31.6
동거 경험(유)	6	31.6
기타(사망 등)	5	26.3
합계	19	100.0

④ 자녀보육과 교육 관계

○ <표 III-21>은 자녀보육과 교육 관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녀보육(교육) 관계는 좋은 편(학교 상담,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활용, 선생님과의 소통, 어린이집에서 설명을 잘 해주는 경우 등)과 힘든 편(보육·양육, 이중 언어교육, 교과학습, 학원비 문제, 말이 느리고 손으로 밥을 먹는다고 하는 등)이 각각 8명(42.1%)으로 나타났고, 잘모름이 2명(10.5%), 나쁜 편(남편이 자녀 교육(보육)에 무관심)이 1명(5.3%)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 적응하며 생활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자녀이며, 그 자녀들은 자녀보육과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교육을 위해 지출이 많아질 것을 염려하며 정책적 배려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교육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표 III-21> 자녀보육과 교육 관계

항목	빈도(명)	비율(%)
좋은 편	8	42.1
힘든 편	8	42.1
나쁜 편	1	5.3
잘 모름	2	10.5
합계	19	100.0

(2) 문화와의 차이점

① 제주사회(문화) 이해 정도

○ <표 III-22>는 제주사회(문화) 이해 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사회(문화) 이해는 높은 경우가 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낮은 경우가 5명(26.3%), 부적응이 4명(21.1%), 무응답이 3명(15.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면 거주 기간이 긴 국제결혼이주여성인 경우가 제주사회(문화) 이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사회(문화) 이해 능력은 한국어 구사능력과 비례하고 있었다.

〈표 Ⅲ-22〉 제주사회(문화) 이해 정도

항목	빈도(명)	비율(%)
높은 경우	7	36.8
부적응	4	21.1
낮은 경우	5	26.3
무응답	3	15.8
합계	19	100.0

② 제주문화와의 차이 정도

- 〈표 Ⅲ-23〉은 제주문화와의 차이 정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 문화와의 차이는 느끼는 경우(식당 서비스, 유교사상으로 연장자 존경, 음식물 쓰레기 분류, 축하인사 인색, 의식주문화, 음식(식사)문화, 행주 사용 등)가 16명(8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응답이 3명(15.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기간이 짧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무응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문화와의 차이로는 특히 음식문화에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23〉 제주문화와의 차이 정도

항목	빈도(명)	비율(%)
느끼는 경우	16	84.2
무응답	3	15.8
합계	19	100.0

③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 〈표 Ⅲ-24〉는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인식하는 경우(보육 방법, 주차 문제, 타인에 대한 간섭, 외국인 편견, 제사문화, 음식문화, 사투리 사용, 직업(운전기사)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 차이 등)가 13명(68.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무응답이 5명(26.3%), 잘 모르는 경우가 1명(5.3%)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거주 기간이 짧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응답하고 있다.

〈표 III-24〉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항목	빈도(명)	비율(%)
인식하는 경우	13	68.4
잘 모르는 경우	1	5.3
무응답	5	26.3
합계	19	100.0

(3) 거주 만족도

①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 〈표 III-25〉는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거주 만족도는 만족(기후, 자연환경 등)이 10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4명(21.1%), 무응답이 3명(15.8%), 불만족(일자리가 없음 등)이 2명(10.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만족도는 절반 정도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제주사회에 거주하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거주 기간이 짧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한국어와 제주사투리가 이해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불만의 표현을 하고 있다. 반면 거주 기간이 오래될수록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물가가 비싸며, 왜 자신의 국가에 살지 않고 국제결혼을 하여 제주에 왔는지 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의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제주사회에 살면서 외국인이라는 자체만으로 차별과 편견, 특히 공무원들로부터 편견을 경험하였다는 증언과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일반시민들로부터 상징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불만 등을 증언하고 있다.

〈표 Ⅲ-25〉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항목	빈도(명)	비율(%)
만족	10	52.6
보통	4	21.1
불만족	2	10.5
무응답	3	15.8
합계	19	100.0

②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 〈표 Ⅲ-26〉은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제주 시민에 대한 생각은 잘 아는 경우(따뜻하고 정이 많은 경우,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잘 칭찬해 주는 경우 등)가 15명(78.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무응답이 2명(10.5%), 보통(지나친 언어(농담 등) 표현 사용)과 잘 모르는 경우(이기적이고 배타적)가 각각 1명(5.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제주시민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나친 언어 사용으로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는 제주시민에 대한 부정적 표현도 증언하고 있다.

〈표 Ⅲ-26〉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항목	빈도(명)	비율(%)
잘 아는 경우	15	78.9
보통	1	5.3
잘 모르는 경우	1	5.3
무응답	2	10.5
합계	19	100.0

③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 〈표 Ⅲ-27〉은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있는 경우가 8명(42.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없는 경우가 6명(31.6%), 가끔 있는 경우가 3명(15.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절반 가까운 수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 차별과 편견을 피하기 위하여 국적을 숨기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이면 한국어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인식과 무시당하는 경우, 대화를 할 때 특히 병원에서 간호사들에 의해 차별당한 경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국가 이름으로 호칭하는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의 이유로 차별과 편견이 일어나고 있다.

〈표 III-27〉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항목	빈도(명)	비율(%)
있는 경우	8	42.1
가끔 있는 경우	3	15.8
없는 경우	6	31.6
무응답	2	10.5
합계	19	100.0

(4) 한국(제주)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

○ 〈표 III-28〉은 한국(제주)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 10명(52.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무응답이 5명(26.3%), 만족이 4명(21.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제주)의 이주 정책에 대한 희망사항으로는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 교육, 출신국가에 대한 이미지 홍보, 학교 선생님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 다문화가정 주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한국어 강사 및 가사도우미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교육을 위해 방과 후 보충수업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 자신들의 학업을 위해 다문화 검정고시반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표 III-28〉 한국(제주)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명)	비율(%)
만족	4	21.1
보통	10	52.6
무응답	5	26.3
합계	19	100.0

2. 다문화교육 전문가 인터뷰 분석

이번 인터뷰 조사는 다문화교육 전문가(4명)가 상이한 다문화교육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다문화교육 전문가 2명은 제주에서, 그리고 2명은 육지부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제주지역보다는 육지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표 III-29〉에서 다문화교육 전문가 네 명의 일반적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9〉 다문화교육 전문가 일반적 사항

순번	직장	거주 지역	일시
1	도교육청	제주	2015년 9월 3일
2	문화기관	서울	2015년 9월 24일
3	시민단체	제주	2015년 10월 15일
4	○○대학	부산	2015년 11월 27일

1) 도교육청

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전문가에 의하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제주지역 학교에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진행하는 단순한 다문화이해 수업과 다문화교육센터 방문교육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주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도 주요하지만 우선 학교에서 정상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정상화되는 것과 동시에 다음으로 교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이 보다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1년에 2번 교원 직무연수와 관리자(교감 이상) 대상 다문화교육 직무연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교원들은 원격으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에 참여하고 있지만 원격교육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일정시간 컴퓨터만 켜놓고 수업 시수만을 채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원격 교원연수는 한계가 있어서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원 직무연수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문화가정 내 남편의 역할이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특히 일반가정은 여성이 자녀들 교육을 전담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에서는 남편의 도움이 어떻게 얼마나 자녀교육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게 나타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제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잘 진행되어서 제주교육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2) 문화기관

서울을 방문하여 다문화교육 전문가인 연구관을 만나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연구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였다. 그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에도 진일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유목문화에 입각해서 의식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21세기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이며, 지식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한편으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에 유목문화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새로운 유목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표현한다. 정주적인 실체도 없고, 원거리성이 극복되어 시공간의 물리적 개념도 무시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유목문화는 광역의 공간에 제각기 능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생활방식을 습득해야 한다. 얼마나 제 때에 이동하고,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여부가 관건이다. 그래서 새로운 유목문화의 사회에서 구성원은 위계적인 질서가 아니라 위상적인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에 기반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노동력이 집약적으로 모여 사는 문화이다. 농경사회에서는 위계적 질서에 의한 조직을 구성하고 안정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안정성이 고착하게 되면 기동성은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고립되기 때문에 의식변화가 현시점에서 주요하게 된다.

오늘날 글로벌 세계에서는 농경사회 문화의 고착성 및 고립성으로 세계 시민사회와 공유하면서 경쟁에 함께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새로운 유목문화를 창조하고 내면화하여야 세계 시민사회에서 한국(제주)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목문화를 이해하고 교육과정에 침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교육은 제주 미래를 위한 자녀교육에 놓여 있다고 한다. 제주시민이 새로운 유목문화를 인식하게 되면 세계의 글로벌 사회를 인식하게 될 것이며, 자녀들이 미래에 세계 시민사회의 경쟁체제에서 역할과 이익추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시민단체

제주 다문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인터뷰하여,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주요성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전문가는 우선 제주지역의 다문화가정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 관련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이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제주 일반가정의 이혼율보다는 낮은 상황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전보다는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조사하고 진단하여야만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제주시민들에게 다문화가정과의 협력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제주 청소년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의 미래는 청소년들에 있고, 일반가정 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서로 함께 제주사회를 이끌어 가야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다문화가정의 이혼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제주 일반가정이 이혼하였을 경우 그 자녀들은 이혼한 부모를 일정기간에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 즉, 자녀가 원하면 자신의 부모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 이혼이 발생하면 그 자녀는 자신의 모친을 만날 기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이혼 후 본국으로 귀환하거나, 육지부로 재이주를 하거나, 요즘에 횡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본국 혹은 타국의 남성을 만나 재혼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신의 모친을 만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모친 없이 자라면서 점차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있고, 이는 한국(제주)이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사회안전망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다문화가정에서의 이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시급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모이게 한다는 것은 얼

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제결혼이 승인되어 제주에 들어오면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일정 횟수의 다문화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강제요건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 가장 시급한 교육은 다문화 시민성교육보다 다문화 청소년교육과 일반 청소년에 대한 다문화교육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들을 일반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를 탐방하여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제주시민으로서의 자아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하며, 그 후 선진국을 탐방하면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다. 더불어 이혼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리적 차원에서 보호망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들의 자질을 파악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주요한 교육이며,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은 제주사회의 미래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4) 대학

육지부를 방문하여 다문화교육 전문교수를 만나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그는 한국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논의과정에 참석하면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천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실천에 집중하고 더욱 강화할 시기임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동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학업 및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탈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학업 성취를 고취시키려는 보충교육 프로그램과 진로탐색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우선적이며 시급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상태이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오히려 반발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조심스럽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지원하는 법인을 통해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유효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는 ‘국제자유도시’로 제정한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통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뒤처지고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제주에서 실행하게 된다면 다문화 시민성교육 발전을 위한 시금석을 제주 사회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육지부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제주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여 실천에 옮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IV.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1.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한 방법이다. 다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주민 혹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주류집단의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을 돕는 방식의 교육으로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주류집단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미래 사회의 통합을 위해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 역시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류집단의 주민 스스로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습득하고자 하며, 이주민들과 상생하고 융합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

Kymlicka(1995, 3)는 ‘다문화 시민성(multicultural citizenship)’은 소수집단과 주류집단 양자 모두가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세계화 시대의 시민의 요구이며 권리라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소수만을 위한 교육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들이 사회에 책임 있는 능동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지니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동화주의적 시민성 개념이 오늘날 그 가치를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제도적 온정주의에 의한 다문화교육은 점차 그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는 점이며, 주류집단 스스로의 상생하고 융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병행하여야 한다.

Banks(2004, 39)가 강조하는 것처럼 “다문화적 시민성은 자신의 문화공동체 및 국가 시민 문화 모두에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필요를 인정하고 정당화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 인종, 언어, 종교 공동체가 국가 시민 문화 속에 반영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가 시민 문화가 변혁될 때 그들은 정당한 존재로 인식된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다양한 공동체들이 국가와 국가의 이상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 다문화적 시민은 자신의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시민의 권리와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면 자신의 지역에 공존하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변혁의 주체로 나아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다문화적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그림 IV-1]참조).



출처 : Banks, J. A.(2004), “Teaching for Social Justice, Diversity and Citizenship in a Global World“, The Educational Forum, 68, p.40.

[그림 IV-1] 문화적·국가적·지역적·세계 시민적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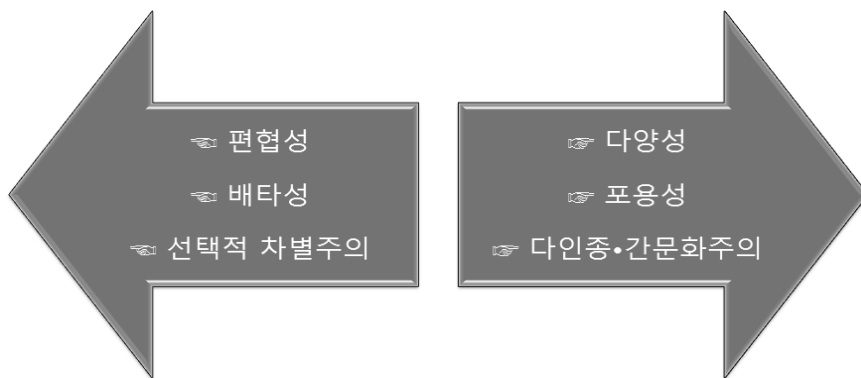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다른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문화에 기반을 두고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을 갖게 하는 교육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종, 사회계층, 성, 언어, 신체적 장애, 종교 등의 개념은 다른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여 다른 문화를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다루는 차원에 있어서도 지역, 국가, 세계시민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구적 관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숙자 외 2009, 132).

결국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목적은 소수종족집단이 주류종족집단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동화, 적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닌 주류집단 구성들이 이질적인 문화를 지니면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원리, 개념 및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하는 교육이며,

그 사회 상황에 적절한 교육의 틀을 성찰적으로 구성하여 실천하는 교육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지역, 문화, 국가, 글로벌의 본질을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발달적인 의식을 형성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개인은 건전하고 성찰적인 문화 정체성을 습득하였을 때에 한하여 건전하고 성찰적인 국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실제적, 성찰적, 긍정적인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이후에 비로소 성찰적이고 긍정적인 글로벌 정체성을 습득할 수 있다” (Banks 2009, 52). 새로운 다문화 시민성을 지닌 일련의 사회는 주류종족집단과 다양한 소수종족집단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융합사회인 것이며,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성찰적이고 관념적이지만 한 국가에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들에게 글로벌 정체성을 함양하려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다. 다시 말해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민족적·국가적·세계적 정체성, 헌신, 이해, 행동 등 여러 방면에서 균형을 유지시키는 구성원을 양성하며, 양성된 그들은 보편적인 민족적 가치와 인류 보편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이러한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데 필요한 역량, 헌신의 태도를 갖추는데 있다(Banks 1984, 56).

제주에서의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제주사회의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의식세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제주의 이주역사에서 제주시민들에 내재화된 편협성, 배타적, 선택적 차별주의로 인한 차별과 편견 등의 상징적 폭력성을 누그러뜨리고 성찰적이고 긍정적인 글로벌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교육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림 Ⅳ-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향후 제주시민들은 편협성 대신에 다양성을, 배타성 대신에 포용성을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 대신에 다인종·간문화주의로 대체되어야 한다.



[그림 Ⅳ-2] 향후 의식 변화의 방향

1) 다양성

원나라 지배와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주인은 외로운 섬 안에서 지속해서 고립된 상태로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오랜 기간 제주인은 폐쇄된 상태로 생활을 영위해야 했기에 다양한 다름의 문화를 능동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다. 다양한 다름을 알아야 다양한 이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이주민의 의도대로 제주생활을 지배했고, 이에 제주인은 수동적 삶을 영위하였기에 편협적인 사고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제주인은 이주민들로 하여금 두려움, 이질감 혹은 적대감이 내면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 이주역사의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인이 지닌 편협적인 사고의 틀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는 현재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제주인은 이주민에 대해 개방적 내면의 세계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다양한 다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감정적으로 내면화된 성격이 빠른 시일 내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측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세계화의 흐름 안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주시민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고를 지녀야만 한다.

제주시민은 편협적인 사고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다름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주의 생활방식대로 삶을 강요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례들을 이번 조사에서 많은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언어문제였다. 대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제주)어가 전혀 습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여 제주에 유입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대화를 진행할 수 없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제주)어를 습득하기 전까지는 생활하기 어려웠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어, 제주사투리를 전혀 모른 상태이며, 결혼 초기에 제주도에 친구도 없어 첫 제주도에 대한 느낌은 아주 안 좋았으며, 3년 동안 집안에 고립되어 지냈다고 한다. 또한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제주)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주

로 왔고, 시어머니와 한때 함께 거주하면서 대화에 많은 불편이 있어서 생활하기 어려웠고, 약간은 이런 이유로 분가를 하게 되었다고 증언한다.

둘째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화북에서 이웃에 살던 국제결혼이주여성 2명이 도망가는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면서 이웃주민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란 도망갈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에 의하면 가족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여 자식을 가지게 되면 이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다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증언에서도 가족을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모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사람의 잘못된 사고가 모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셋째는 제주인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제주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 적응해야만 하면서도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외지인의 문화에 대해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제주) 식사 문화에 의구심을 지니고 있다. 그녀는 네 자녀를 기르고 있으며 두 자녀는 너무 어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특히 캄보디아에서 아침식사는 대부분 준비하지 않고, 하루에 두 끼니로 생활하는데 한국은 세 번의 식사를 모두 챙겨야 해서 자녀를 양육하며 세 번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10살이 되면 부모를 도와 농사 및 가정 일을 시작하며, 청장년층이 되어 경제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부모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생활화되었지만, 제주에서 자녀들은 공부만 하며 10대에 부모를 돕는다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청장년층이 되어도 경제적으로 부모를 돕기 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계속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그녀의 경우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남편의 계속되는 조언에 지금은 자신도 자녀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는 아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사고가 변하게 된 것은 3년 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국적을 받게 되고 대화가 쉬워

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은 자녀들의 시간이 허락하면 부모를 도와야 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제주)의 가부장적 제도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답답하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한다. 시부모는 남자가 최고라고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옆에 같이 있으면 TV도 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서 제주 남편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증언자들도 남편들은 퇴근 후 가정에서도 자녀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남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는 제주시민을 위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시급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서는 자신들의 국가에서도 가부장제도가 존재하여, 제주생활에서 가부장제도에 대한 다른 생각을 지닌 적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제사와 관련된 증언에서도 국가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는 가족과 이웃모임이 많아서 제주에서의 제사 모임에 대한 큰 거부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필리핀 그리고 중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제사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경우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제주사회에서 제사를 왜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현재에도 생겨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라는 명칭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다문화’를 ‘장애인’과 유사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사용하는 ‘다문화’는 아이들에게 차별적 용어처럼 들린다고 한다. 또 다른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은 자신의 국가문화와 제주문화와의 차이를 증언하고 있다. 고향에서는 생일, 여성의 날에는 남편이 꽃을 주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들을 낳아도 고맙다고 말을 안 해서 좋은 추억이 없어졌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마음이 아플 때 사랑한다면 스킨십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울지 말라고만 한다. 고향에서는 나이가 몇 살 위라도

나쁘면 나쁘다고 다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나이 차이가 있으면 나쁘다고 해서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잘못을 안 해도 ‘예’라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은 여성이 20살에 결혼한다는 점에 대해 상상하기 어렵고, 이는 과거에 있었던 일로서 다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17~18세에 결혼을 하는데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들의 나이는 대부분 20살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국제결혼을 하여 제주로 이주한 여성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결혼 적령기를 놓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제주)에서 결혼 적령기를 놓친 40대 이상의 남성과 결혼 적령기를 놓친 20대의 동남아 여성과의 결혼이 성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연령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주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왜 나이 많은 남성과 결혼할 생각을 하였고, 제주에 오게 되었냐고 질의를 하면 국제결혼을 한 20대 여성은 내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여기에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이주여성은 7~8년 전에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공무원이 반말로 “여기는 어디인데, 집에 있냐?” “조사 중인데 가도 되냐?” 등으로 응대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해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항의하자 공무원이 “외국에서 시집오는 애들은 모두 20대니까 어린애가 아니냐”라고 답변하여 화가 많이 났고, 나중에 사과를 받아낸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제주인의 다양성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국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이와 함께 선진 다문화 사회의 역사 경로를 이해하며, 그들 사회가 경험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외국의 다문화 시민성교육 사례를 경청하고 토론하며, 다양한 문화에의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2) 포용성

제주이주의 역사에서 제주인은 외지인에 의해 자신의 이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고가 팽배하며, 오늘날에도 이런 배타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

다. 제주인의 배타적 성격은 제주인 스스로만 노력해서 해결될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외지인과 제주인 서로의 노력들이 함께 해야만 제주인의 배타적 성격은 점차 포용적 성격으로 변화해야만 한다. 제주인의 배타적 성격은 포용적 성격으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지닐 때 외지인과 제주인이 서로 상생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제주로 유입된 국내 이주민들은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주를 자신의 고향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은 제주인들과 서로 상생하고 융합하려는 생활의 모습에서 그들의 2, 3세대 자녀들은 이제 제주인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제주로 유입된 외국인들도 이주 기간이 길어지고 스스로 제주인이 되어갈 때, 제주인들도 그들과 함께 상생하고 융합하고자 하는 포용성이 내면에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제 제주사회는 외국인을 제주인 스스로의 동의와 허락을 통해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인 스스로가 그들의 도움을 요청한 상태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외국인이 제주사회에 적응하는 시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제주인 스스로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고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현 시점에서 제주시민이 포용성을 지니게 하는 교육으로서 시급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제주에 유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직시하려는 모습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연구주제에서는 제주 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들을 교육과정에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인의 포용성 내면화 문제는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제주에서 진행되는 외자유치, 부동산 투기, 중국자본 등 제주경제의 주요한 부분이 공존하고 있어서 정책적 측면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적 측면이 교육적 측면과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면 문화적 지체 현상 및 제주인의 불만적 표출로 인한 배타적 성격의 역발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거주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제주인의 배타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증언들에 따르면 시모가 외국인 며느리란 이유만으로 배척하였으며, 이로 인해 분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지금도

연락을 자주 안하고, 중간에서 남편이 힘든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외국인, 특히 동남아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일부 제주시민은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려는 포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못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1980년대까지 육지부의 여성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지금에는 외국인 며느리로 전환된 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외모가 한국(제주)인과 유사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으로 보이려 하지 않는다는 고려인 이주여성의 증언도 있다. 외국인으로 보이면 고려인이 아니고 몽골사람으로 생각하는 제주인이 있고, 범죄에 노출된다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되도록 상대방과 대화를 피하여 내국인으로 보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이는 외국인도 국가별에 따라 차별과 편견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주시민은 현재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평등하게 인식하려는 포용적 성격을 내재하지 못함을 인식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자신들의 국가가 다민족국가로 다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데 반해, 제주인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이 강해서 외부인이 끼어드는 것을 거부한다. 특히 육지 사람에 비해 먼저 말을 걸기가 어렵고 무뚝뚝하며, 학교에서 엄마들 간에도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자신 국가의 언어(이중 언어)를 교육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시부모와 남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시부모와 남편들은 자녀가 제주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 언어 습득은 주요하지 않고 단지 학교 교육에 더욱 관심을 갖고 교육시키고자 한다는 점이다.

배타성은 제주인들에게만 존재하는 성격이 아니다. 재중동포들도 한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재중동포들이 살고 있는 중국지역에 한국인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한다면 많은 재중동포를 기만하는 것을 보고 재중동포들은 현재 한국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저하되고 배타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자신도 한국인을 싫어했는데 친구 엄마의 소개로 만난 후 남편의 솔직함에 믿음이 가면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배타성은 서로의 노력 여하에 따라 포용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제주시민이 지닌 배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인 제주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주요하지만 제주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내제한 배타성을 없애고 포용성의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다각적인 모색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를 위한 일련의 방안으로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3) 다인종 · 간문화주의

다인종주의(Multiracism)와 간문화주의(Interculturalism)란 용어 자체가 제주인에게는 생소하다. 한국(제주)인은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교육을 통해 단일민족을 강조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가치 합리적으로 선택적 차별주의가 깊숙한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주국가들은 백인주의를 강조하며 많은 사회의 인종갈등을 자아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지속해서 지불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요한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에는 역사적으로 민족적 갈등과 이에 부합되는 종교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며 주요한 사회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은 유럽에서의 민족갈등을 여실히 나타내는 주요 사건이다.

현재까지 제주에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차원에서 사회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주인이 지닌 선택적 차별주의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정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상징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교육적 차원에서 제주인의 선택적 차별주의를 해소시킬 모색을 진행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면 문제의 심각성을 자아내게 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지출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를 위해 현재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주요한 교육으로 자리해야 할 것이며, 사후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택적 차별주의의 성격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제주를 넘어 한국의 교육정책 및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중앙집권적 성격이 짙은 한국의 경우 더욱 교육을 통한 의식변화는 중앙정

부의 노력 의지가 필요하다.

또한 제주인이 세계 시민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제주에서 발생하지는 않지만 세계의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인종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제주인 스스로의 진단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는 미주와 유럽의 역사 진행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된 내면적 성격으로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국과 제주에서 인종과 민족에 의한 갈등이 아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는 미래 한국과 제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택적 차별주의로 나타나는 상징적 폭력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이주여성은 병원에 갔을 때 무조건 외국인이면 한국말을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택시를 타도 먼저 ‘한국어를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좋을 텐데 처음부터 한국말을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또한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부탁하러 갔을 때도 외국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인식이 강하다. 복잡한 상황에서 운전할 때도 자신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결국 제주도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베트남의 한 국제결혼이주여성도 얼굴 모습을 보고 가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네팔의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자녀가 아파서 제주시내 병원(소아과)에 갔을 때 간호사에게 불친절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또 다른 네팔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팔 사람’이라 불러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삼촌이 현재의 한글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민족적 차원에서의 상징적 폭력 사례도 존재하는데 캄보디아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어린이집 원장님으로부터 자녀가 밥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고 하거나 말이 느리다고 지적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원장선생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속상했다고 한다. 가정에서도 자신이 걸레와 행주를 따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같이 사용한 적

이 있었을 때 가족구성원들이 자신을 무시를 하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속상한 적이 있었다. 또한 캄보디아는 식사를 천천히 하는데 한국에서는 빨리 먹으라고 하고, 말을 할 때에도 ‘빨리하라’는 등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게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이주여성과 다르게 국가적 차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반일 감정에 대한 증언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일본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한국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육지에서 생활할 때 버스 안에서 일본어를 사용했다고 할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경험이 있다고 증언한다. 또 다른 일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증언을 보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선생님이 따라 다르지만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은행에 갔을 때 고객이 일본인이면 귀찮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서 속상했고, 식당에 갔을 때도 계산을 확인하지 않고 돈을 그냥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제주인이 일본인에 대한 감정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일본과 한국의 사회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일본은 사회 중심인 반면 한국은 가정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다. 일본 사람은 규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한국 사람은 정(情)을 먼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를 미 분류해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자신은 그렇게 하느냐고(분류해서 버린다) 할 때 다투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인종 및 간문화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제주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입장을 다루고자 하였다.

대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는 제도적 온정주의에 근거한 다양한 다문화사업을 베풀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직접 제주사회에서 취업을 하고 정당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직장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인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이라 해고될 가능성이 높아 불안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무료 검정고시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자격증 사회이기 때문에 학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취업을 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진학이 진행되면서 보충수업 학원비에 대한 걱정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녀를 위한 무료 교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증언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국제결혼이주여성에 있었는데, 그녀는 제주시민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외국인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여도 (제주인은) 외형적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주사회에서 영원히) 외국인으로서 살아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주시민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를 버리고 새로운 의식인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다인종·간문화주의를 내면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시급히 필요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2.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순위

다문화 시민성 교육은 교육 목표에 따라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문화 교육 내용은 세계화 혹은 지구화로의 사회변화, 소수종족집단들과 주류종족집단의 다양한 문화 이해, 상호의존성과 공동체적 삶, 존중과 친밀감, 자아실현, 세계 시민의 역할 등의 주제들이 내재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대상자에 따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체는 달라져야 한다. 주류종족 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내용과 소수종족집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내용은 달라야 하며, 연령별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 내용과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 내용은 달라야 한다.

제주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실행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비교해서 공공부문은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직무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광의적 개념으로 확대하면 모든 다문화교육을 해당시킬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주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을 일컫는 용어로 이해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지역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으로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은 (1) 제주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2)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3)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다문화 시민성 교육의 대상자들은 주류집단에 속하는 구성원으로서 소수집단에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대상자에 속하게 된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일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오랜 이주역사를 지닌 국가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주역사가 오래지 않은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민간부문에서 진행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교육 대상자 확보가 가장 용이한 교육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허락과 동의가 된다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 역시 수월하게 교육 대상자를 확보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가장 교육대상자 확보가 어려운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구성원 교육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이 진행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그 때마다 교육대상자인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다문화교육 참가에 수동적이었고, 매번 중복되는 남편만이 교육에 참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제도적으로 강제성을 띄우지 않는다면 가장 어려운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교육이 시급한 순서에 근거

해서 준비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관점으로 파악한다면 우선순위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사회의 다문화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을 위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시급하고, 다음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경험 역시 제주 다문화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순위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대상자의 확보와 수동적 참여 등에서의 평가가 제주사회에 우선 다문화교육으로 인식하여 진행되어야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교육 참여가 긍정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런 의미에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우선 다문화 인식 확대의 차원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 대상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교육순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1) 일반시민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화의 흐름에 맞춰 아시아의 최고 도시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정으로 이어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관광도시뿐만 아니라 산업의 지식기반과 정보화를 구축하고자 하면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거대 프로젝트이다. 또한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도제 실시 60년 만에 특별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비합리적인 틀을 벗고, 세계의 흐름과 발맞춰 제주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위계적이고 획일적 정책 적용에서 벗어나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 능동적으로 제주 고유의 정책 및 실천, 즉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수립 및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키우자는 의도가 있다.

다문화사회는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제주사회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단시일에 끝나는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 현상임이 틀림없으며, 제주인의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주요 사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다문화사회 진입은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새롭게 구상되어야 하며, 사전 예방적으로 제도의 도입 및 개선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제주인의 의식변화를 요구하며, 단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정책과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에의 치중을 담보해야만 한다. 이로서 제주인의 성격을 성찰적이고 다양성을 담보하는 새로운 의식과 성격을 형성하고, 상징적 폭력을 해소하며, 제주사회가 세계화에 진입하며 경쟁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① 제주인의 다문화 정체성과 자긍심, 그리고 세계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 ② 소수종족집단 문화의 개별성과 독특성을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는 내용, ③ 주류종족집단과 소수종족집단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친숙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④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활발히 교류하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 ⑤ 서로 편견 없는 시각으로 상호의존적 내용, ⑥ 고정관념을 벗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⑦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서 사회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자아실현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이 이론적 내용에만 충실하게 되면 흥미유발을 일으키지 못한다. 이론과 답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은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다인종 및 간문화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측면과 제주의 이주역사를 통해 차별과 편견 그리고 상징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답사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표 IV-1>과 같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은 10주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며, 크게 5개로 구분된 다문화 교육내용을 포함한다. 일련의 다문화교육은 2주에 7시간(1주차 강의 3시간; 2주차

답사 4시간)으로 운영하며, 이로서 5회 7시간으로 총 35시간을 지정해서 교육을 운영하도록 계획한다. 따라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은 1년에 3회 걸쳐 운영이 가능하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은 매회 제주시민 40명 내외로 제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답사의 경우 1대 대형버스의 탑승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교육 중 식사 제공은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한 결과 식사 제공은 식중독 사고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회피하는 것이 용이하다. 만일 식사를 제공하려면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양한 국가의 음식을 준비하여 식사하는 방안이 다양한 문화이해를 위해서도 교육의 일환으로 주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사의 교육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안전사고를 위한 간단한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를 마련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이론교육은 제주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육지부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주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제주 다문화 현황과 실태 및 미래 제주 다문화사회에 대한 강의와 토론은 필수적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의 다문화 사례와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사업 및 미래의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분석에 대해서는 육지부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으로의 진행 역시 필요하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답사교육은 제주 이주 역사를 담당하는 역사문화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주역사는 이주역사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 지역에 다문화 관련 역사 현장들이 두루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의 역사 현장을 이주와 관련하여 정리된 부분은 그리 흔치가 않아서 역사문화 전문가들 중 역사 현장을 이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한 학자를 선택하여 교육에 참여시켜야 한다. 제주의 아픈 역사 현장을 통해 제주시민들의 현재 의식이 형성된 배경을 파악하고, 미래에 세계시민으로 제주시민이 성장하기 위한 의식을 내면화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답사교육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주 다문화 시

민성 교육프로그램은 1년을 진행한 후에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가며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그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표 IV-1> 일반시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순위	인원	이론 주요내용	답사 주요내용
1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개념의 이해 • 미주와 유럽의 다문화 •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고대 역사문화 이해 • 제주도 탄생신화 • 삼양유적지-삼성혈 답사 • 제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탐방
2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이주역사 • 고대와 삼성신화 • 원나라와 고려시대 • 조선시대 • 일제강점기와 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 • 원나라 100년 지배 • 항과두리 답사 • 국제가정문화원 탐방
3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이주의 변화 • 국제결혼이주여성 • 다문화교육 • 외국인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나라 멸망 • 고려에의 편입 • 법화사와 범섬 답사
4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 • 일본 • 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 유배지와 출륙금지령 • 추사 사적지와 유배길 답사
5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아시아 문화 이해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 몽골, 네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점기 • 알뜨르비행장에 산재한 일제 군사 시설 답사(지휘소, 격납고 등) • 셋알오름 곡사포진지 답사

2) 공무원 교육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제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공공기관의 방문 및 의사소통은 필수적이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으로부터의 상징적 폭력에 의한 피

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이며, 나이가 어리고, 한국(제주)어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공무원들로부터 상징적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입국사무소의 왕래는 살얼음 위를 걷는 심정이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출입국사무소에 정해진 기간에 필수적으로 방문하여 연장신청 및 허가를 취해야만 한다. 외국에 오랜 기간 동안 국적 취득 없이 거주했던 경험을 지닌 사람이라면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허가취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다. 따라서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은 다문화 인식의 제고가 주요하기 때문에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중요 대상자가 된다. 주민자치센터 역시 이주여성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생활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과의 공무 상황에서 그들의 편의 제공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 역시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주요 대상자가 된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도 지역사회에 함께 더불어 사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일반주민들과 평등한 관계에서 공무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이등국민으로 차별하고,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판단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저해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은 일반시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다문화 인식을 지녀야 한다. 특히 공무원들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의 능력을 지녀야 하며, 다인종 및 간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자신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며, 편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유입배경, 다양한 국가에 대한 이해, 그들의 생활상 등을 인식하고 그들과 항상 의사소통을 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제주사회에서 공공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우는 없다. 이는 공무원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을 대

상으로 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우선 다문화를 관장하는 다문화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이해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강 형태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을 대치하여 이론과 그들의 생활상 및 고민을 듣는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역으로 자신들이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현재의 다문화 관련 제도 및 법체계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들과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대화 시간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은 지역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할 수 있으며,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의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 방문이 수월하여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대화는 물론 공무원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 대상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① 다문화 개념에 대한 이해, ② 다양한 선진 유럽국가와 한국의 다문화 정책 및 실천, ③ 제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 ④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국가와 문화 이해, 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상에 대한 이해, ⑥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대화 등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야 한다(<표 IV-2> 참조).

이론은 제주 및 육지부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하고, 답사는 제주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와 교육기관을 방문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표 IV-2> 공무원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순위	인원	이론 주요내용	답사 주요내용
1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개념의 이해 • 미주와 유럽의 다문화 •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센터장의 사업설명 • 시설 및 교육방식 이해
2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실천 • 법무부 다문화 관련 법령과 쟁점 • 육지부 다문화 전담공무원 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센터장의 사업설명 • 시설 및 교육방식 이해
3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다문화 이해 • 국제결혼이주여성 •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 센터장의 사업설명 • 시설 및 교육방식 이해

순위	인원	이론 주요내용	답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이주의 변화 • 제주 다문화정책과 실천 	
4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문화 이해 • 일본 • 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대화 • 이주여성 생활상 이해 • 이주여성 고충 이해 및 토론
5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관련 공무원 인성교육 • 일본에서의 재일제주인의 삶 • 역동적이고 포용적인 제주 다문화 사회를 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의 의미 • 원나라 100년 지배 • 향파두리 답사

3) 다문화가정 구성원 교육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사회에 동화되고, 제주시민의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에서 모색되는 교육이다. 이에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응해 살아가며 생기는 제반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미래 지향적이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제주시민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제주시민들은 다문화가정들과 상생융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세계 시민의식의 함양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맞이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제주시민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맞이한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그들의 동의와 허락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었으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선택과 행동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가장 많은 상징적 폭력 및 물리적 폭력까지도 일어나는 장소가 가정이며, 행사자도 가정 구성원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불안한 다문화가정의 이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반가정과 비교하여 비율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이혼의 수는 적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이혼은 일반가정의 이혼보다 사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된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란 시부모를 비롯하여 형제분 내외와 자녀 등으로 지칭할 수가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제주에 유입되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며, 가장 빠른 대화의 창구이기도 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신뢰하고 제주사회의 삶에 기둥으로 자리하며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뢰와 기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이혼 혹은 도망 등의 일탈 행동을 생각하게 되며 감행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의 불협화음 및 상징적 폭력 행사에 대한 내용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에 가장 대표적 인물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맞이한 남편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남편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가 문화를 이해하고, 그녀의 성격까지도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제주)사회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기를 강요하며,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도움과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그 자녀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 언어 습득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게 된다면 서로 간 이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지금까지 제주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맞이한 남편에 대한 교육을 다양한 민간단체 및 교육단체에서 실행되었다. 하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남편들은 아주 제한적이었고, 직장 업무관계로 수업 참여도 적극적이지 않아 남편 대상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 있다.

남편 다음으로 주요한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시부모로서, 이들은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부모들은 20대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지닌 문화 인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제주사투리를 구사하지 못하여 여러 상황에서 고부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시부모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 국가의 문화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문화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주여성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전통방식을 강요하면서 상징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번 조사에도 나타나듯이 시부모 형제들(남편 가족)과의 불화도 상당부분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많은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시부모와 그 가족들(형제)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대상자 선정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 그들은 다문화 시민성교육에의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남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단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다문화 남편 교실에 참여하지 않았던 남편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남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상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가족의 정상 생활과 앞으로의 사회 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하는 다문화교육임에 틀림없다.

이번 조사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은 절대적으로 남편과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부모와의 불협화음에서도 남편에 의해 분가와 타협점을 찾아내고 있는 경우가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도 남편의 신뢰와 믿음만을 가지고 제주로 유입되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녀들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안전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기의 다문화가정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이들 가정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남편 대상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은 이론과 다양한 문화 알기로 구분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론교육은 가족의 중요성을 집중으로 다루며 다문화가정의 안정화에 주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가족이란? 남편의 역할이란? 가정 내 의사소통 방식이란? 가정 내 갈등을 봉합하는 상호간의 이해와 감성 등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담고, 현재 제주 다문화 현황과 정책 및 실태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표 IV-3〉 참조). 답사교육보다는 다양한 문화 이해교육을 담보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에 대한 일반적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이라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자신들이 자신의 국가에서 부모가 자신을 보육하고 교육을 시켰던 방식에 의해 자녀를 보육하고 교육을 하게 된다.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국제결혼이

주여성의 국가 교육방식을 이해하여야만 한국의 교육방식을 종합하여 자신들의 자녀 보육과 교육을 담당할 수가 있다. 특히 자녀가 교육기관에 보내지게 된다면 일반가정의 남편과는 다른 행동방식을 지녀야 한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제주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어 구사 및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표 IV-3〉 다문화가정 구성원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

순위	인원	이론 주요내용	문화알기 주요내용
1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개념의 이해 • 미주와 유럽의 다문화 • 차별배제-동화주의-다문화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기초 다문화교육(일본의 일상생활 습관, 애정관, 자녀교육관 등)
2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다문화 이해 • 국제결혼이주여성 • 제주이주의 변화 • 제주 다문화정책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기초 다문화교육(중국의 일상생활 습관, 애정관, 자녀교육관 등)
3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제주 가족제도 특징 • 현대 제주 가정생활 문화 • 남편이란 존재 알기 • 남편 역할로서의 나의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기초 다문화교육(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일상생활 습관, 애정관, 자녀교육관 등)
4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의 한 남편으로서 자존과 회복 • 가족들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 -가족 유대감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과 몽골의 기초 다문화교육(필리핀과 몽골의 일상생활 습관, 애정관, 자녀교육관 등)
5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평등 부부관계 형성 • 미래 남편상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과의 만남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과정을 통해 파악된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일련의 기초작업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는 제주사회에 급속하게 증가하는 외국인인의 수에 기인하며, 특히 지속적 성장세를 나타내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한 방법이다. 근대사회의 도래와 함께 오랜 이주역사를 지닌 선진 미주 및 유럽사회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선진 사회에서는 인종과 민족적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였다. 선진사회에서 점차 근본적으로 일반시민의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들의 인종과 민족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중요성을 전파하였으며, 실천에 옮기려는 노력을 증진시키고 있다. 다문화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주민 혹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주류집단의 사회를 이해하고 적응을 돕는 방식의 교육으로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런 동화주의적 다문화교육은 점차 사장되는 흐름에 놓이게 되었고, 주류집단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미래 사회의 통합을 위해 스스로 의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통해 주류집단의 주민 스스로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며, 이주민들과 상생하고 융합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주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로 표현될 수 있다. 선사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제주사회는 이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탐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그리고 1960~80년대의 국내 이주역사를 통해 2000년대로 이어지면서 외국

인의 제주도 유입이라는 새로운 이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진 이주역사는 제주인들에게 그들만이 내재하는 성격을 지니게 하였다. 제주의 아픈 역사는 국내외 이주민에 대해 이질적이고, 적대적이며, 회피하려는 성격을 지니게 하였고, 이는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0년대 이주역사는 이전의 이주역사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전의 이주역사에는 국내외 이주민이 제주인들에게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주로 유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현재 진행되는 외국 이주민은 제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제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전의 이주역사에서는 제주인 스스로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정책과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제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 이주민이 유입되는 관계로 제주인에게는 그들과 상생하고 융합하여 살아가려는 능동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 놓여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능동적인 다문화정책과 실천이 주요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유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민들은 제주사회에 유입된 국제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의식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제주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고 또한 자녀출산과 교육은 자신의 다문화가정 자체 문제로 치부될 수가 있다. 제주 다문화가정의 생성은 제주사회 자체에 결혼 문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사회문제이므로 제주사회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하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주에서 진행되는 국제결혼이주 유형의 변화는 제주인의 새로운 의식의 내면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제주인의 성격 즉,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에 따라 국제결혼이주여성과의 상생과 융합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제주인은 새롭게 변화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식구조를 내재화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제주인의 의식 변화를 위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다. 과거 국내외 이주민에

대한 제주인의 의식이었던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는 새로운 의식인 다양성, 포용성 그리고 다인종·간문화주의로의 변화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해 실제 제주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19명의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을 면접하여 그들의 제주사회 적응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절반 정도가 제주시민들에 의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제주시민들은 이주 역사를 통해 편협성, 배타성 그리고 선택적 차별주의라는 성격이 내재화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상징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남편으로부터의 상징적 폭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시급히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진행되어 제주 시민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진단할 수가 있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조사 분석 후 다문화교육 전문가를 육지부와 제주에서 인터뷰하여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였다. 다문화교육 전문가들은 제주사회에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실천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육지부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천을 선구자적이며 성찰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를 근거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중에서 교육 순위를 결정하여 일반 시민, 공무원,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였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교육 대상자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일반시민의 경우 제주 이주 역사를 이해하고 제주인의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파악하게 하며, 이를 근거로 앞으로 제주사회의 변화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다가오는 다문화사회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들과 상생하고 융합하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주인 스스로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행동양식을 전환하는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한국과 제주 다문화 현상 및 정책과

사업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선진 국가에서 진행되는 다문화 시민성교육 사례를 경청하며 다문화 인식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주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생활을 토론과 대화로서 인식하여 그들이 제주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구성원 특히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전통적 제주 가족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오는 제주사회에서의 가족 유형과 새로운 가족 내에서 남편의 역할과 자긍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서 가정생활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줄이는 교육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제주 이주역사를 통해 제주인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다. 또한 다문화사회의 진입과정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민들이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상생하고 융합하며 살아가기 위한 제주 시민 의식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실행 타당성을 타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기초연구이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체계 구축과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5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천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은 다문화를 연구하거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과 제주시민들 중에는 다문화란 사회복지와 같아서 우리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육지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한 재정적 투자를 꺼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선진사회에서 오래전에 경험했던 사례이다. 선진

사회는 주류집단의 이런 배타적이고 우월주의 의식에 의해 추후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여 왔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만 했다.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지출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지출을 비교하면 그 비용은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대한 지출이 엄청난 차이로 절감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선진사회의 사례를 통해 제주사회의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특별자치도이면서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지녔다고 하겠다.

둘째,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설계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대상자의 우선순위 그리고 교육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주요한 내용을 추상적으로 개괄하고 있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기관의 선정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이 선정되었다면 그 교육기관은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게 되며, 이에 따른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상세 프로그램이 계획·수립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이 실천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성격을 띠며, 상세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그만 첫 발걸음인 것이다.

셋째, 대상자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다.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만으로 규정될 수 없다.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제주시민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은 다양한 교육방법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 민족과 인종의 의상을 갖고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도 있으며, 음식문화 혹은 주거방식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다. 제주사회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실천되면 보다 빠르게 제주시민은 다문화 인식에 대한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넷째,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인의 성격 규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주인의 성격 규명을 문헌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빈약한 측면을 내

포하고 있고,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인 성격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도 현재까지 진행되거나 분석된 경우가 매우 드문 상태이다. 보다 나은 조사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인의 성격 규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제주 다문화 현상과 맞물려 제주시민이 현재 지니고 있는 성격을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연구들이 시급히 진행되길 희망해 본다.

다섯째, 다문화교육 네트워크의 구성과 논의의 활성화에 대한 문제이다.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현재에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가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다문화 관련 다양한 네트워크가 역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다양하게 구성된 다문화 관련 네트워크는 형식에 치중하는 면이 많다. 법률 및 조례 혹은 실천규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점이다. 형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요식 행위이며 교육·행정적 기만이라고 생각된다. 다문화교육 관련 특히 제주 다문화 시민성교육에 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다양한 다문화교육 전문가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논의를 하며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동식·강영훈·황경수(2009), 『일제강점기 제주지방 행정사』, 제주발전연구원.
- 강창화(2013), 「고고학적으로 본 제주[耽羅]로의 주민 이주와 사회생활상」, 제주다문화교육센터, 2013년 다문화교육 교원 직무연수 자료집.
- 고갑석·최영희(1966), 「제주도 인구의 특질」, 『인구문제』제2집, pp.95~105.
- 김민호(2006), 「제주지역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의 교육환경 조사」, 『논문집』 제35집, pp.305~337.
- 김선미(2008),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적용에 따른 문제」, 『사회과교육학연구』 제4호, pp.63~81.
- 김일우(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1), pp.127~160.
- 김한곤(2009),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농촌사회』 19(1), pp.83~120.
- 김향은(2008),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pp.13~64.
- 김현선(2006), 「국민, 半국민, 非국민-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사회연구』 12, pp.77~106.
- 김희용(2008), 「다문화사회에서의 문화통합과 문화교양」,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pp.65~92.
- 남미숙(2008), 「다문화이해 교육의 운영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국제이해교육 연찬회 자료집.
- 민경숙·유형근·조용선(2008), 「다문화가정 중학생에 대한 반(反)편견 교육 프로그램 구안」, 『중등교육연구』 56(2), pp.491~526.
- 박경환(2006),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사회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재세계화를 위한 이론적 함의」,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3), pp.69~78.
- 박병섭(2006), 「다문화적 소수자 문제에서 한국의 특수성」, 『사회와 철

- 학』 12, pp.99~126.
- 박수미·정기선(2006),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70, pp.5~25.
- 박용후(1976), 『제주도지』, 백영사.
- 박재규(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 전북지역 사례」, 『농촌경제』 29(3), pp.67~84.
- 박주희·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4), pp.395~432.
- 박철희(2008),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에 따른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와 한국적 다문화 교육의 방향 모색」,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 한국교육사회학회·국제이해교육학회 공동학술대회.
- 슬라보예 지젝 지음·김희진, 이현우 옮김(2011),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 신용하(2012), 「‘탐라’ 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의 형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2 탐라대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10~33.
-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 출판부.
- 안경식 외(2008),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양순미(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 분석 :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16(2), pp.151~179.
- 양영자(2008), 『한국 다문화 교육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염미경·김규리(2008), 『제주사회의 여성결혼이민자들 : 선택과 딜레마, 그리고 적응』, 선인.
- 오경석 외(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pp.61~83.
-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 민족(ethnic minority), ‘코시안’ (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pp.1~21.
- 윤용혁(2011), 「몽골제국, 제주에 주목하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서경문화사, pp.93~106.

- 이민경(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 서구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pp.83~103.
- 이영훈(1989), 『일제하 제주도의 인구변동에 관한 연구』, 고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기(1975),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 자연교육연구소(2007), 『세계를 이해하는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도서출판 제이솔.
- 장태환(2001), 「한국대학생의 인종·민족 선호도에 관하여」, 『당대비평』 14, pp.99~113.
- 전숙자·박은아·최윤정(2009),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도서출판 그린.
- 정광중·김민호·오성배·황석규·고광명(2012),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 정유성(2008), 「토론문 : 독일의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이주가정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65~67.
- 정천석·강기정(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 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1), pp.5~23.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03), 『제주4·3사건 진상 조사보고서』.
- 제주문화예술재단(2010), 『제주, 몽골을 만나다』.
- 제주특별자치도(2007), 『2007 제주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2009),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보육시설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보센터(2009), 『다문화보육 프로그램』.
- 진관훈(2004),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각.
- 塚崎昌之(2004),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육지부 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pp.219~273.
- 한건수(2003), 「타자 만들기 :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9(2), pp.157~193.

- 황석규(1985), 『상층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석규(2009),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정책의 과제와 미래」, 『탐라문화』 제35호, pp.371~404.
- 황석규(2010), 「제주 다문화 현황과 시민성교육의 필요성」, 『제주학과 만남』, 제주학연구자모임, pp.207~235.
- 황석규(201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한국사지리학회지』 23(4), pp.87~102.
- Banks, J. A.(1984),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Boston : Allyn & Bacon.
- Banks, J. A.(2001), “Multicultural education : historical development, dimensions, and practice“, in Banks, J. A. and Banks, C. A. M.(eds.) *Handbook of Research on Multicultural Education*, San Francisco : Jossey-Bass, pp.3~24.
- Banks, J. A.(2004), “Teaching for Social Justice, Diversity and Citizenship in a Global World“, *The Educational Forum*, 68, pp.289~298.
- Banks, J. A.(2007), *Educating Citizens in a Multicultural Society*, 2th ed. 김용신·김형기 역(2009), 『다문화 시민교육론』, 교육과학사.
-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모경환·최종욱·김명정·임정수 역(2008), 『다문화교육 입문』, 아카데미 프레스.
- Bereiter, C. & Engelmann, S.(1966), *Teaching disadvantaged children in the preschool*.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rnstein, B.(1972), *Studien zur sprachlichen Sozialisation*. Düsseldorf : Pädagogischer Verlag Schwamm.
- Bourdieu, P.(1982), *Die feinen Unterschiede*. Frankfurt am Main : Suhrkamp.
- Coleman, J. S., Kelly, S. D., & Moore, J. A.(1975, April), *Recent trends in school integration*. Paper deliver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Washington. DC.
- Herrnstein, R. J.(1973), “I. Q.“ in *the meritocracy*. Boston: Little, Brown.
- Jensen, A. R.(1969), “How much can we boost IQ and scholastic achievement?“, *Harvard Educational Review*, 39, pp.1~123.

-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Pettigrew, T. F. & Green, R. L.(1976), “School desegregation in large cities: A critique of the Coleman ‘White flight’ thesis“, *Harvard Educational Review*, 46(2), pp.1~53.
- Riessman, F.(1962), *The culturally deprived child*. New York : Happer & Row.
- Shockley, W.(1972), “Dysgenics, geneticity, raceology: A challenge to the intellectual responsibility of educations“, *Phi Delta Kappan*, 53(2), pp.297~307.

ABSTRACT

The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nalysis on Social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eyword: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Narrow-minded, Exclusive and Optional Discrimination, Diversity, Acceptability,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This study aim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program for the citize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ased on the data analysis identified during the process of social adapt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Jeju and to propose a series of fundamental arrangements to develop the education program. Such a proposal is based on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in Jeju, particularl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which is on a continuous rise.

The multicultural citizenship education in Jeju is an effort to establish a new mindset that meets the change in the society. The education is to appease the symbolic violence in the migration history in Jeju includi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by the Jeju citizens due to the narrow-minded, exclusive and optional discrimination, and prepare for the education to develop introspective, positive and global identity (diversity, acceptability, multiculturalism and interculturalism).

《부록》

면접 질문지

응답자 정보	성명		출생(나이)	
	학력		직업	
	이주 시기		국적 취득	
	거주 기간		거주 지역	
	출신 국가		출신 지역	
	결혼 년도		결혼 동기	
	자녀 수		나이	
	재학 학교		기타	
배우자 정보	배우자		출생(나이)	
	학력		직업	
	본적지		거주지	
	시부모		형제자매	
가정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편과의 관계 정도 2. 시부모와의 관계 3. 자녀보육과 교육 4. 기타 			
문화와의 차이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3. 제주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4. 기타 			
거주 만족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4. 기타 			
한국(제주) 이주정책				
기타				
일시·장소				
조사자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응답자 특성(1)

대상	나이	학력	직업	이주 시기	국적 취득	거주 기간
K	36	고졸	관광 가이드	2004년	취득	11년
P	40	대졸	회사원	2006년	미 취득	9년
G	36	고졸	회사원	2008년	미 취득	7년
T	26	초졸	가정주부	2013년	미 취득	2년
J	29	초졸	가정주부	2012년	미 취득	3년
R	25	고졸	가정주부	2011년	취득	5년
T	30	초졸	서비스업	2012년	미 취득	3년 9개월
A	47	보육전문 학교 졸	회사원	1999년	미 취득	7년
O	30	초졸	다문화 강사	2008년	취득	7년
N	41	고졸	대학생	2004년	미 취득	9년
D	22	중졸	가정주부	2014년 1월	미 취득	1년 9개월
K	48	대졸	영어 강사	2003년	취득	12년
Y	40	고졸	일본어 강사	1999년 10월	미 취득	16년
S	32	대학 중퇴	회사원	2002년	취득	13년
K	25	중졸	무응답	2010년 3월	취득	5년
K	41	고졸	무응답	2001년	취득	14년
J	29	대학 중퇴	무응답	2011년	미 취득	4년
B	40	고졸	서비스업	2005년	미 취득	10년
S	24	고졸	가정주부	2012년	미 취득	3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응답자 특성(2)

대상	거주 지역	출신 국가	결혼 년도	결혼 동기	자녀 수	재학 학교
K	제주시	중국	2004년	친구 소개	2명 (1남 1녀)	초등, 중등
P	제주(도련)	중국	2008년	시누이 소개	2명 (1남 1녀)	어린이집
G	제주(화북)	우즈베키스탄	2008년	친구 소개	2명 (2남)	어린이집
T	구좌(한동)	베트남	2013년	사촌 언니	1명 (1녀)	
J	제주시	베트남	2012년	결혼정보업체	1명	어린이집
R	구좌(세화)	네팔	2011년	결혼정보업체	2명 (2남)	어린이집
T	구좌(세화)	네팔	2011년	결혼정보업체	1명 (1녀)	어린이집
A	제주(노형)	일본	1997년	종교단체	4명 (2남 2녀)	초·중등
O	제주(외도)	캄보디아	2008년	결혼정보업체	1명 (1남)	어린이집
N	제주(고성)	일본	2003년	종교단체	2명 (1남 1녀)	초등
D	구좌(중달)	캄보디아	2014년	지인 언니	1명 (1녀)	
K	한림	필리핀	2003년	사촌 언니	1명 (1녀)	초등
Y	제주시	일본	1999년	종교단체	3명 (3남)	초·중등
S	제주(화북)	우즈베키스탄	2002년	결혼정보업체	4명 (2남 2녀)	어린이집, 초등
K	제주(내도)	캄보디아	2010년	동네 언니	4명 (2남 2녀)	어린이집, 초등
K	애월읍	중국	2001년	친구 엄마	2명	초등
J	제주(화북)	베트남	2011년	기타	1명 (1녀)	
B	제주(삼양)	우즈베키스탄	2005년	결혼정보업체	2명 (2남)	초등
S	구좌(하도)	필리핀	2012년	결혼정보업체	출산 예정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특성

대상	나이	학력	직업	본적지	시부모 생존 여부	형제자매
A	51세	고졸	관광업	충남(대전)	시모	5명 (3남 2녀)
M	48세	전문대졸	전기공사	전남(완도)	무	9명 (1남 8녀)
P	44세	전문대졸	목장	제주(표선)	유	3명 (2남 1녀)
I	44세	고졸	양식장	제주(성산)	유	5명
K	38세	중졸	제과점	제주(구좌)	무	3명 (2남 1녀)
L	41세	대졸	국가유공자	서울(강동)	시모	2명 (1남 1녀)
B	45세	고졸	농업 회사	제주(세화)	무	무
K	53세	고졸	여행사 경영	전남(광주)	무	4명 (3남 1녀)
Y	59세	중졸	버스 기사	제주(아라)	무	5명 (3남 2녀)
S	43세	고졸	미용사	전라도	무	무
B	35세	고졸	노동자	제주(구좌)	유	2명 (2남)
J	49세	대졸	콘도 경영	서울	무	무응답
K	42세	전문대졸	가전제품 설치기사	전라남도	유	무응답
C	47세	대졸	정비업체	부산	무	2명 (2남)
D	45세	대졸	자영업	제주(오라)	시모	7명 (4남 3녀)
E	53세	고졸	무응답	제주(애월)	무응답	6명 (2남 4녀)
F	45세	고졸	화물운송 기사	무응답	시모	무응답
G	54세	고졸	학원 운전기사	제주(위미)	시모	3명 (2남 1녀)
H	48세	고졸	농업	제주(하도)	무응답	5명 (4남 1녀)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경제, 교육, 문화적 차이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나이에 대한 의식은 하지 않고 언어구조 상의 문제가 있다.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데도 평상시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시모(76세)는 집에 가끔 온다.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리감이 있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애들 교육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남편이 애들을 봐 준다. 여성인력센터에 가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한 학기 한번 상담한다. 애들 친구들을 집에 놀러 오게 한다. 애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p> <p>4. 기타 숙박 때문에 크루즈 가이드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인 친구가 없다. 외국인이라서 접근하기 힘들다. 애들하고 외식하는데 남편은 안 간다. 2012년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했다. 우울증이 있어서 공예품 만들기, 컴퓨터 등을 배우고 있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질서나 의식 수준이 높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유교 사상으로 인해 나이 든 사람을 존경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시킨다. 남편은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 중국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다한다. 중국인이란 의식을 하지 않는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본국 문화에 비해 갓난아이를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 남편이 작은 아들이라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큰 형님이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낸다.</p> <p>4. 기타 친구가 없고 눈치를 보는 것이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공기 등 환경이 좋고 사람이 적어서 좋아한다. 국가에 따라 정치체제, 인맥, 돈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제일제주인은 물위에 떠다니는 수초와 같지만 조선족은 역사를 공부하여 많은 것을 느껴서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국가에 따라 이주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조선족인 경우에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왜 왔냐? 돈 벌러 왔냐? 남편을 만나게 된 동기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다른 엄마들은 국적을 숨기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p>

<p>한국(제주) 이주정책</p>	<p>남편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언론이나 TV를 통한 홍보나 정체성 교육이 필요하다. 다름을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중 언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이 없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문화나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접촉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홍보(TV 등)를 하게 되면 편견도 덜 가지게 된다.</p>
<p>기타</p>	<p>할아버지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 중국 학교에 다니지 않고 부모님 권유에 의해 조선족 학교에 다녔다. 친정 엄마는 재혼해서 평택에 거주하고 있다. 심양에는 코리안 타운이 있는데 한국인 이미지가 좋지 않다.</p>
<p>일시·장소</p>	<p>2015년 7월 10일 금요일, 그랜드호텔 근처 찻집</p>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2)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애들의 교육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 말이 적어서 잔소리가 없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임신한 후 사망하여 시모와의 관계는 없다. 시누이는 자식과 같은 나이또래이다. 수도를 고치거나 하는 등 잡일을 시켜서 시누이와 갈등이 있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어린이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하게 한다. 알림장은 본인이 체크한다. 남편은 운동회 때만 가고 해서 애들 교육에 관심이 없다.</p> <p>4. 기타 경기도에 있는 인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시누이 소개로 만났다. 제사는 1년 7번 정도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며 혼자 준비한다. 본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형제들은 밥 먹을 시간에 온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다. 부모님이나 학생에 대한 교육보다는 각 국가에 대해 좋은 점을 홍보하고,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중국 문화와 비교했을 때 지역적인 차이가 크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어르신들이 외국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편견을 갖고 있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제주도는 공기, 환경이 좋고 마음이 편하다. 다만 돈 벌기기 힘들다는 점이다. 힘들어서 그렇지 부지런히 일하면 돈이 된다. 지역적 선호도가 높고 생활수준 차이가 없어서 좋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출신 국가에 따FMS 인식 차이가 없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직장에 다니지 않아서 별로 없다. 경기도에서 거주할 때에도 편견이 없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p>국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p>
기타	<p>남편과 같이 다문화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없다. 집안일은 본인이 한다.</p>
일시·장소	<p>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중앙로 근처 커피숍</p>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3)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남편과는 좋은 사이이지만 가끔 싸우기도 한다. 같이 고향(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가 가장 좋았다. 나쁠 때는 일하고 와서 쉬고 싶은데 자꾸 말을 건다고 화를 내는 경우이다. 대화는 잘 하는 편이지만 농담을 할 때 언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특히 TV를 볼 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잘 말해주지 않는다. 남편은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야구를 좋아한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돈이 없어서 1년 정도 같이 거주하였는데 시부모와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자들이 집에 있으면 애들 키우는 보육에 문제가 발생한다. 시부모는 밥을 맛있게 해 주고 애도 봐주는 등 잘 도와줘서 편하게 지냈다. 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게 되면 답답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된다. 부모는 남자가 최고라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옆에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같이 TV도 보지 못하고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한다. 생활이 불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결국 부모님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시부모와는 정이 들어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손자들을 보러 집에 자주 오는 편이다. 시아버지는 옷도 사주고 잘 해주는 편이다. 애들을 직접 어린이집으로 데려 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소통이 잘 되는 편이다. 남편은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애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같이 상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애들이 아빠 곁에 잘 가지 않는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 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제주 문화에 대해 잘 모른다. 육지 사람은 밥은 먹었는지, 잘 놀았는지 등 표현을 자주 하는데 제주도 사람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고향에서는 생일, 여성의 날에 꽃을 주면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들을 낳아도 고맙다고 말을 안 해서 좋은 추억이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다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제사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다. 제사 때는 고모 등 친척들이 오며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다 준비한다. 부모님이 살아 있을 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사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고향에서는 마음이 아플 때 사랑한다면서 스킨십을 해 주는데 여기에서는 본인이 울 때 울지 말라고만 한다.</p>
거주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p>

만족도	<p>처음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바다, 공기 등 자연 환경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았다. 제주도는 지역이 크지 않고 쉴 시간도 없고 해서 계속 바쁘게 지낸다.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말도 하고 이해를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p> <p>착하다, 예쁘다고 말할 때 자기 생각은 솔직히 표현해야 된다. 처음에는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향에서는 예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거나 말을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착하다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다.</p> <p>고향에서는 나이가 몇 살 위라도 나쁘면 다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나이 차이가 있으면 나쁘다고 해서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못을 안 해도 ‘예’라고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p> <p>병원에 갔을 때 무조건 외국인이면 한국말을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택시를 타도 먼저 ‘한국어를 하세요.’라고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한국말을 못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관리사무소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부탁하러 갔을 때도 외국인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인식이 강하다. 복잡한 상황에서 운전할 때 잘못을 안 했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제주도에는 좋은 것도 많은데 얼굴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p> <p>4. 기타</p> <p>제주시민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국적을 취득해도 외형적 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한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p>요리도 공짜로 배우고 미용사 교육도 싸게 해주고 면허를 받을 때 도와주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 언어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해 주었으면 한다.</p>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화북 근처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4)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양식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일이 바쁜 관계로 1주일에 2~3회 집에 온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는 같이 살지 않는데 1주일에 3~4회 정도 집에 온다. 시부모가 반찬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항상 걱정해 주어서 사이가 좋은 편이다. 시부모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부모는 밭에서 당근 재배를 하고 있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다.</p> <p>4. 기타 사촌 언니 소개로 남편을 3번 만나서 결혼했다.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제주에 와서 한복을 입고 예식장에서 식을 올렸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바다가 있어서 좋고 기후가 좋은 편이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p>
한국(제주) 이주정책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세화 근처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5)

가정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 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는 결혼 전에 돌아가셨다. 3. 자녀보육과 교육 어린이집에서 잘 설명해 주어서 불편 사항이 없다. 4. 기타 형제로는 형님과 누님이 있다.
문화와의 차이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거주 만족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가끔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제주) 이주정책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세화 근처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6)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애기가 말을 잘 안 듣거나 할 때 언어에 대한 불편감이 있다. 남편이 이따금 욕을 한다.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서로 다툼 때가 있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모와 5년 동안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고부간에 갈등은 없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현재 자녀 보육에는 큰 문제가 없다.</p> <p>4. 기타 남편과는 전날 보고 다음날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에는 남편의 엄마와 누나가 참석했다. 네팔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다가 2개월 후에 제주도로 와서 살고 있다. 남편은 21세 때 군복무(육군) 중에 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하다. 시모는 며느리에게 전부 맡기고 싶다고 한다. 시누이는 서울에 살면서 가끔 제주도(연 1~2회)에 오는데 처음에는 다툼 적이 있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음식, 언어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적응하는데 힘들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먹는 것이나 사는 것, 입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 네팔에서는 아침에 간식, 빵, 네팔 차를 하루에 2번 먹는 반면 여기에서는 하루에 3번 식사를 한다. 네팔에서는 물건을 산 후 환불을 해주지 않는 반면 제주도에서는 물건을 구입한 후 일괄적으로 계산한다. 네팔에서는 전통 옷을 주로 입는 반면 여기에서는 바지, 티를 입는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음식 중에서 순대, 김밥을 좋아하지만 생선 음식(회, 오징어 등)은 좋아하지 않는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생활편의, 교육시설 등이 잘 되어 있어서 만족한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밖에 나갈 기회가 적고 사투리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대화를 할 때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다. 마트에 갔을 때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여 힘든 적이 있었다. 제주 시내 병원(소아과)에 갔을 때 간호사에게 불친절을 당한 경우가 있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일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한다.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평대 근처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7)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싸울 때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한다. 애가 아플 때와 남편이 퇴근 후 피곤해서 딸과 잘 놀아주지 않아서 속상한 적이 있다.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는다. 잔소리도 거의 하지 않으며 가정적이다. 다문화교육센터에 남편과 같이 갈 정도로 남편과의 사이는 좋은 편이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5년 전 시모는 사망하였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딸은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쉬는 날에 본인이 양육하고 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네पाल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애를 혼자 키워서 힘들다.</p> <p>4. 기타 결혼하기 전에 네팔에서 한국어 학원(5명 수강)을 다니면서 2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를 한 적이 있다. 2015년 10월 한국어 4단계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일을 하고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집에 도둑이 들어 결혼 폐물이 없어졌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사투리가 어렵고, 음식이 맞지 않아 힘이 들었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두 국가 간에 음식 문화가 다르다. 네팔에는 음식을 만들면 그날 먹는 반면 제주도는 먹다 남으면 나중에 먹기도 한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투리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서 적응하기가 힘들다.</p> <p>4. 기타 제사를 준비할 때는 남편과 같이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다. 형제가 없어서 삼촌 아들만 온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많고, 생활(마트, 시장 등)이 편하여 제주도에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네팔에서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제주도에서 버는 한 달 월급이 네팔에서 버는 1년 연봉과 비슷할 정도이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이웃사람들이 '착하다'고 칭찬하면서 잘 해 준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동네 사람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네팔 사람'이라 불러서 기분이 나쁜 적이 있다. 그래서 삼촌이 부수정이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p>산후조리 시에 1주일 정도 가사도우미가 필요하고, 평일 오후 5시 이후와 주말에 어린이집에서 애를 봐주었으면 직장을 다니는데 좋겠다. 그래서 한국어 강사와 가사도우미 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 시골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차량유지비 등)을 해 주었으면 한다.</p>
기타	<p>네팔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다.</p>
일시·장소	<p>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평대 커피숍</p>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8)

<p>가정생활</p>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남편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싸운 적이 거의 없다. 다만 성격이나 사고방식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로 다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요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냄새가 나는 것을 싫어하여 환기를 시키기 위해 문을 열 때 서로 다툰다. 한국 음식은 계란말이, 라면 등을 좋아한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는 광주, 시모는 제주가 고향이다. 시모는 남편이 중학교 때, 시부는 둘째 임신했을 때 돌아가셨다.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 재혼한 시모와 서귀포에서 7개월 정도 같이 거주한 적이 있다. 나중에 시부는 이혼한 후 암에 걸려서 6개월 정도 살다가 치료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현재 자녀교육은 좋은 편이지만 과거는 좋지 못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현재 학원에는 다니지 않고 학습지 교육을 통해 공부하고 있다. 한국 어머니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큰 아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엄마가 학교는 가야된다고 했다. 1학년 때(12월 말) 학교 선생님(담임)으로부터 연락이 온 적이 있다. 선생님은 입학식 때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다. 애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학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발음상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교과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는데 밖에 나가서 잘 놀지 않았다. 둘째 아이부터는 행복하게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경우 일본에는 공동구매를 하는데 한국에는 각자 준비한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미술치료를 받은 후 5~6학년부터 잘 적응하고 있다. 가정통신문을 보면 선생님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p> <p>4. 기타 결혼 전에는 보육 관련 일을 도쿄(東京)와 오지(王子)에서 하다가 나중에 선박회사에서 파견사원(서류담당)으로 근무하였다. 결혼하고 나서 개인 사정으로 1년 후 함께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위미에서 거주하다 서귀포 시내로 이사했으며 현재는 연동에서 살고 있다. 남편은 회사택시,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현재 여행사를 경영하고 있다. 애들 3명을 낳을 때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그 때 친정어머니가 한번 제주에 다녀간 적이 있다.</p>
<p>문화와의 차이점</p>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거나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다. 과속을 하거나 다른 차를 추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바쁠 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p>

	<p>제주도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를 미 분류해서 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분류해서 버린다) 할 때 다투는 경우가 있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p> <p>일본은 규칙이 우선이지만 한국은 정이 먼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어린아이가 참지 못해서 실수로 오줌을 샀을 때 옆에 있는 옷으로 응급처치를 한다. 걸레로만 닦아야 하는 인식에 차이가 있으며 아이(사람)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가졌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p> <p>바다와 산이 있어서 자연 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p> <p>제주도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이 아니다. 제주시민들은 일본에 친척이 많다.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감정이 없는 편이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p> <p>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편견을 받은 적이 없다. 일본인으로서 잘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p>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정착을 위해 잘 해줘서 좋다. 학교 선생님도 다문화가정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 잘 해주었으면 생각한다.</p>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국제가정문화원 사무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9)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7년 정도 외도동에 거주하고 있다. 22세 때 남편(52세)과 결혼하여 잘 살고 싶어서 한국으로 왔다. 몇 시간 대화하고 그 다음날 캄보디아에서 합동결혼식을 올렸다. 그 때 남편이 3번째 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처음 남편과 대화할 때는 손짓, 발짓으로 했는데 지금은 사전을 보면서 한다. 처음 만났을 때 5층 건물에 산다고 해서 5층 건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을 1년 가까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는 결혼 전 돌아가셨다. 큰누님 집에 자주 놀러가고 여동생하고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이다. 누나가 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으며, 명절은 부부가 준비하여 차례를 지낸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어린이집 원장님이 애가 밥 먹을 때 손으로 먹는다고 하거나 말이 느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럴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속상했다. 애들에게 어릴 적에 이중 언어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한다.</p> <p>4. 기타 캄보디아에서 초등학교 중퇴 후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현재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남편은 캄보디아에 한 번 갔지만 본인은 4번 갔다 왔다. 고향에 갈 때는 과자, 삼푸(비누 등), 후라이펜 등을 선물로 사 갔다. 친정 엄마는 3개월 정도 한번 다녀갔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대화를 할 때 사투리를 사용하면 싸우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제주 사회에는 왜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다. 남편 모임이 있을 때 같이 가지 않는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걸레와 행주를 따로 사용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같이 사용한 적이 있었을 때 무시를 하고 큰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속상한 적이 있다. 캄보디아는 천천히 먹는데 한국에서는 빨리 먹는 등 식사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다. 말을 할 때에 ‘빨리하라’ 는 등 언어적 차이가 있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남편은 관광버스 기사를 하다가 현재 동진여객 시외버스 기사를 하고 있다. 남편이 밤에 늦게 들어올 때는 큰소리로 화만 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울고 고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한 적이 있다.</p> <p>4. 기타 제주도에 살면서 다문화 센터를 알게 되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p>

	<p>무뚝뚝하지만 뭔가 동네에서 가족같이 챙겨준다. 옷도 주고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p> <p>주공아파트 근처에 사는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냐고 묻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 했더니 그 후부터는 할머니가 잘 해 주었다.</p> <p>4. 기타</p> <p>처음 왔을 때 과일가게에서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으며, 가정 형편 때문에 호텔에서도 7개월 정도 청소 일을 했다. 남편이 용돈을 준다. 애기를 낳고 난 후 시청에 위탁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다문화이해 강사(3곳)를 하고 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공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다문화가정 주부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겠다. 보건소에 신청해서 유아 돌보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과거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유료이다.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국제가정문화원 사무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0)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통일교회 소개로 6개월 정도 전화와 편지로 사귀다가 2003년에 결혼했다. 한국 요리를 잘 못하는데도 잘 먹어주고 이해해 주는 편이다.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영똥한 이야기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한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는 7년 전, 시모(77세)는 2011년에 돌아가셨다. 살아계실 때 하귀에서 4개월 정도 시모와 같이 거주했는데 좋으신 분이요 잘 해주었다. 시모는 교회(기독교)를 다녔다. 제사는 큰 집에서 지내서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있으며 생각이 서로 다르다. 큰 아이(7세)가 일본에서 금방 왔을 때 한국어가 잘 안 되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갈등이 많았다. 지금은 교우관계가 좋은 편이고 잘 적응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들이 신경을 잘 써주고 도와주는 편이었다.</p> <p>4. 기타 일본에서 고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방송통신대 일본학과를 다니고 있다. 남편은 고교를 졸업한 후 미용전문학교를 다녔다. 서울에 있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결혼한 후 도쿄에서 미용사로 근무했다. 현재 용담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제주도에서 살다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일본에서 거주했다. 2011년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제주에는 물건 값이 비싸고 일자리가 없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일본은 사회 중심인 반면 한국은 가정 중심이다. 식당에 갔을 때 서비스 등 친절하지 않은 편이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대화(사투리)를 할 때 잘 알아듣지 못했으며, 주차할 때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고, 가끔 물건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애들 키울 때 옆집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했으며, 세탁기를 9시부터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불쾌했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자연 환경이 좋고 평화스럽고 혼잡하지 않아서 만족한다. 특히 아토피를 치료하고 애들 키우는데 좋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제주도 사람에 대해 잘 모른다. 시어머니는 전라도에서 와서 40년 동안 살았다. 시어머니 친구 분들이 좋은 며느리라고 격려해 주었다. 제주도 사람들은 농담이나 지나친 표현이 많아 언어적으로 무뚝뚝한 편이다. 처음에는 표현력이 부족하고 무서워서 시어머니하고 집안에만 있었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선생님이 따라 다르지만 일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 그럴 때 학생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은행에 갔을 때 고객이 일본인(외국인)이면 귀찮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서 속상했다. 식당에 갔을 때 확인하지 않고 돈을 그냥 받는 경우가 있었다.</p> <p>4. 기타 교통이 복잡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한다.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국제가정문화원 사무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1)

가정생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형제는 2남 중 차남이다. 비교적 양호하다. 2. 시부모와의 관계 양호한 편이다. 동거하고 있다. 3. 자녀보육과 교육 아직 어려서 직접 돌보고 있다.
문화와의 차이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제사도 지내는데 별로 힘들다고 안 느끼며,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도 양호한 편이다. 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캄보디아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대신 사망한 날, 일주일 후, 100일 후에 추모 행사를 치른다. 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른다.
거주 만족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비교적 만족한다. 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동네주민들과 잘 지내는 편이며, 외출할 기회가 별로 없다. 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특별히 없다.
한국(제주) 이주정책	
기타	
일시·장소	2015년 11월 1일 일요일, 세화 근처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2)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양호한 편이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전남편의 시어머니와 동거했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갈등도 많았으며, 한때 광주로 도피한 적도 있다. 경제권은 시어머니가 갖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돈이 생기면 도망갈 것으로 우려했던 것 같다고 한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사별한 전 한국 남편 사이에 1녀를 두었다. 딸이 5살 때 현재 남편과 재혼하였다. 어린이집, 학교 상담에는 남편과 동행한다. 성장과정에서 문제없었다. 성격은 활달하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체류기간이 긴 편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필리핀은 부부중심 문화, 월급은 아내가 관리, 생일엔 지인 초대해서 파티, 식사는 손으로 한다. 부자는 직접 일하지 않고 일꾼 고용하는데 반해 제주는 부자도 모두 일을 하는 등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고향과 자연환경이 비슷하며 만족도가 높다. 노력하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제주도 남자는 마마보이이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특별히 차별 받은 경험은 없지만, 표정으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은 종종 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p>현재 정책에 만족한다. 정책보다는 결혼 초기 시대 식구들이 취업 및 학업에 대해 반대했는데 좀 더 관대할 필요가 있다.</p>
기타	
일시·장소	2015년 7월 1일 수요일, 메가 박스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3)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양호하다. 남편이 일본어 공부하며, 가정적이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부모도 통일교로 관계 양호하다. 언어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 지나친 교육열에 대한 부담감이 느낀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아이들에게 교육시킨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와카야마현도 감귤농업이 활발하며, 자연환경이 유사하여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높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일본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 한국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제사의 경우 일본은 절에서 하지만 제주는 여자들이 모두 준비한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한국은 부모에 대한 의지(기대)하는 심리가 높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경제활동이 힘들고, 직업이 제한적이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육지부에 비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육지부에서 어학원 시절 버스 안에서 일본어를 사용했다가 할아버지한테 뺨 맞은 경험 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기타	<p>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심화교육 개선을 희망한다. 현재 프로그램만으로는 단순히 문화교육에 그친다. 친정어머니가 통일교회에 다니고 오빠가 한국에서 유학했다.</p>
일시·장소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일도동 근처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4)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형제는 2남 중 장남이다. 비교적 양호하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 (행동, 관심사).</p> <p>2. 시부모와의 관계 결혼 직후부터 시어머니와 동거해오다 3년 전 돌아가심</p> <p>3. 자녀보육과 교육 보육에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 있다. 자녀가 많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영어학원만 보내고 있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체류기간이 긴 편으로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다. 제사와 명절을 합해서 1년에 5번 하는데 별로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우즈베키스탄은 다민족 국가이므로 다민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데 반해, 제주도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이 강해서 외부인이 끼어들기가 힘들다.</p> <p>3. 제주문화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음주 문화가 지나치다(남편이 음주가 과함).</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만족도가 높다. 도시에 비해 조용하고 자유스럽고 아이들 키우기에 안전하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육지 사람에 비해 먼저 말 걸기가 어렵다. 무뚝뚝하다. 엄마들 간에도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부모와 선생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7~8년 전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걸려 왔을 때 공무원이 반말로 “~인데 집에 있냐?” “조사 중인데 가도 되냐?” 등 응대한 적이 있다. 직접 기관 방문해서 항의하자, 공무원이 시집오는 애들은 모두 20대니까 어린애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했다. 나중에 쌀, 등을 보내왔다. 필요 없다고 하고 직접 사과하라고 하자, 결국 담당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p>자녀 여권을 만들 때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은 애들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차별 정책이 없기를 희망한다.</p>
기타	<p>‘다문화’ 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으면 한다. 일반인들은 ‘장애인’ 으로 인식하고 있고, 다문화 캠프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쓰는 다문화라는 호칭이 아이들에겐 차별 용어처럼 들린다. 다문화 행사에 다문화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도 참가하는 즉 전체가 함께 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p>
일시·장소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화북 근처 커피숍

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5)

<p style="text-align: center;">가정생활</p>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형제는 4남 3녀 중 막내아들이다. 남편 재혼, 이전 부인에 2남과 결혼 후 2녀 출생했다. 결혼 초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아들 둘과 함께 지낼 때 어려웠지만, 딸 둘을 낳고 난후 지금은 술도 많이 줄었고, 현재 잘 지내고 있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아버지는 25년 전 사망, 시어머니(83세)는 둘째 아들과 거주하고 있다. 잠시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는데, 그때는 한국어를 못하여 제주 사투리를 구사하는 어머니와 살기 어려웠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내년 큰아들이 중학교 가면 학원비가 문제된다. 지금도 아들 둘은 수학, 영어, 국어 학원을 다닌다. 첫째 지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미안하기도 하고 집이 허전하여 많이 울었다.</p> <p>4. 기타 캄보디아는 대부분 17살과 18세에 결혼하니 조금 늦은 시기에 결혼했다. 여자는 대부분 공부를 하지 않고, 가부장제도가 많이 남아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와의 차이점</p>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대화가 되기 전에 어려웠지만 지금은 한층 좋아졌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식사에 차이가 있다. 캄보디아는 아침은 거의 못 먹는다. 제주를 하루 세 번을 모두 챙겨야 해서 아침마다 어렵다. 한국사회는 캄보디아에 비해 추워서 옷이 두꺼워 세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세탁기를 구입하여 쉽다. 캄보디아는 옷이 얇아서 손빨래를 한다.</p> <p>3. 제주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캄보디아에서는 10살이 되면 농사와 식사를 해야 하지만 한국은 자식에게 모두 공부에만 관심을 갖는다. 남편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한다. 한국 자녀들은 부모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고,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성장 후에도 캄보디아인은 경제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도와준다.</p> <p>4. 기타 자녀들 교육문제 등으로 고향 갈 생각이 없다. 캄보디아는 영어 학원이 비싸다. 제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연결한 다문화 강사로 부터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다.</p>
<p style="text-align: center;">거주 만족도</p>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부모는 보고 싶고, 1번밖에 고향에 다녀오지 못했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제주생활이 아주 편하여서 만족하지만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캄보디아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는 오전 10시면 시장이 파한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부모가 자식에게 모두(교육, 결혼) 도와주는 것이 이상하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p> <p>4. 기타 시골에 거주하여 처음 제주에서 버스를 탈 때 멀미하여 자주 걸어 다녔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다문화학생 무료과외 공부, 이주여성 검정고시 반을 신설 요청한다. 다문화 강사로부터 한국어 교육을 2년 밖에 배우지 못해서 아쉬웠다.
기타	고향은 프놈펜에서 5시간 소요된다. 한글 능력시험으로 3년 만에 국적을 취득하여, 계속 공부하길 희망한다. 올해 동려학원도 찾아가 검정고시(고등학교)에 대해 상담했다. 통역과 번역, 그리고 만두집도 경영하고 싶다.
일시·장소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국제가정문화원 사무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6)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한국 사람을 싫어했지만 친구 엄마의 소개로 몇 번 만나고 믿음 생겨 결혼했다.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초혼이라는 것에 신뢰를 얻었고, 결혼부터 지금까지 잘 도와준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댁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많아 제사 이외에는 거의 접촉이 없다. 특히 시누이가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참견이 많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무시한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교과서에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다룰 때 애들 간에 사소한 다툼이 있어서 조금 속상했고,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p> <p>4. 기타 27세까지 노처녀로 있었다. 친정엄마도 함께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처음이 가장 어려웠다. 언어가 안 되고 특히 음식이 맞지 않아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고민했고, 또한 시댁의 가정문제가 복잡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남편이 자식을 낳기 이전부터 제주에서 잘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중국에는 제사가 없어서 제주 제사문화를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되었지만 가족문제로 참석하기 싫고, 가면 많은 일을 해야 해서 싫다.</p> <p>3. 제주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외지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p> <p>4. 기타 한국 사람을 처음에는 아주 안 좋아했다. 중국 심양에 사기꾼이 많아 한국 사람을 싫어한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시골이라 이웃 눈치로 부담되는 일이 있다. 대문을 잠그고 외출했는데 이웃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심양보다는 아니지만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주시민의 인심이 좋은 것을 경험한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시댁 형제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경험했다. 처음에 와서 3년 동안은 형제 내외분들이 어렵고 무섭게 대했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타	남편의 신뢰, 친정 가족이 제주 거주, 자식으로 인해 제주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일시·장소	2015년 10월 21일 수요일, 국제가정문화원 사무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7)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운송업(화물):에 종사하고 있어서 3일에 한번 집에 온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중매로 결혼을 했고, 남편이 너무 잘 해준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친부모는 돌아가시고, 남편의 계모가 있다. 계모는 외국인 며느리라서 싫어했고, 그래서 분가했다. 연락도 자주 안하고, 중간에서 남편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어린이집이 너무 좋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제주생활이 너무 좋다. 다른 육지부도 남편을 따라 많이 다녀왔는데 육지는 교통이 매우 복잡하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베트남은 제사가 많고, 제주는 제사가 적다. 집에서 3번 혼자서 제사를 한다. 제주는 노인당, 장애인단체 등 사회복지가 너무 좋다. 베트남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제주는 그렇지 않다. 결혼도 베트남은 18~25세 때 하고 30세가 넘으면 포기해야 한다.</p> <p>3. 제주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p> <p>4. 기타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빴는데 점차 나아진 것 같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생활비가 너무 비싸다. 제주사람들은 정이 들면 잘 해준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국적을 받은 외국인 며느리는 이혼하거나 도망간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다.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화북 이웃에 살던 국제결혼이주여성 2명이 도망가는 바람에 저에게도 직접적인 차별은 아니었지만 베트남인이라 나쁜 사람과 같은 시선을 보낸 적이 있다.</p> <p>4. 기타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대학교 진학이 아니라 식당 등에서 직장을 얻고 싶다. 일자리에서만 만족하지 못한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정규직 취업에 대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타	다문화 혜택 때문에 국적 취득을 미루고 있다. 2011년 KCTV에서 보내준 덕택에 고향 방문을 했다. 국적 취득자격은 있으나 연기 중이다. 하롱베이 근처 탄광촌에서 살았다. 경제문제로 인해 대학을 중퇴했다.
일시·장소	2015년 10월 23일 금요일, 국제가정문화원 사무실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8)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형제는 2남 1녀 중 장남이다. 남편 도움이 많아 무난한 편이지만 아내와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오히려 남의 말에 귀를 더 잘 기울인다. 고집이 센 편이다. 특히 자녀교육 문제로 인해 간혹 다툰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아버님은 2년 전에 사망하고, 시어머니는 따님을 이웃에 두고 홀로 위미에서 감귤농사하며 거주하여 1달에 한번 정도 만난다. 관계는 무난한 편이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 큰 애가 발표력이 부족하여 태권도 도장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 언어반이 없어져 이중 언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어도 서툴고 직장이 없어 큰애는 3살에 둘째는 2살에 어린이집에 보냈다.</p> <p>4. 기타 교회에 다니는 남편은 술, 담배를 안 하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한국어, 제주 사투리를 전혀 모른 상태이며 국제결혼 초기에 제주도 와서 친구도 없어 첫 제주도에 대한 느낌은 아주 안 좋았다. 3년 동안 집안에 고립되어 자식만을 키우며, 남편에게서 한글 공부를 받았고, 이후 이주민센터에서 한글 교육을 받으며 점차 제주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주 시간이 지나면서 우즈베키스탄 친구도 생기고, 교회에 나가면서 교우를 통해서 그리고 다문화 관련 센터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주사회를 알게 되었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생활에 편한 시설들이 많다. 마트, 버스, 택시, 병원 등이 우즈베키스탄 보다 생활에 편리하다. 김치와 고등어는 아주 맛있으나, 국수는 좋아하지 않는다. 태풍이 불 때 춥고, 여름은 아주 덥다.</p> <p>3. 제주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제사가 너무 많다.</p> <p>4. 기타 현재는 큰애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현재는 우즈베키스탄보다 제주도에 사는 것이 편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왕래만하고 특히 자녀들 때문에도 계속 제주에 살고 싶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좋은 사람들 이라고 생각한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외국인으로 보이기 싫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아 차별과 편견의 경험은 지금까지 없다.</p> <p>4. 기타 교회, 센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만 만나서 사회참여 기회가</p>

	적다.
한국(제주) 이주정책	자신들이 제주에 올 때는 국적 반기가 쉬웠는데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무료학원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기타	고려인이어서 외모가 제주인과 비슷해서 외국인으로 보이려 하지 않는다. 뉴스와 시어머니가 사기꾼이 많다고 하여 외국인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우즈베키스탄 사람이라기보다는 몽골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국적 취득은 가능하나 현재 시간이 없어 연기 중이다. 혼기를 놓친 상태에서 결혼정보업소 중매로 남편을 만났다.
일시·장소	2015년 11월 14일 토요일, 화북 커피숍

국제결혼이주여성 질문지(19)

가정생활	<p>1. 남편과의 관계 정도 형제는 4남 1녀 중 3남이다. 술도 안마시고, 친구모임도 자주 하지 않아 가정적이다. 남편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병이 들까봐서 잔소리를 한다.</p> <p>2. 시부모와의 관계 시댁 남자들이 많아서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다. 특별한 일에만 만난다.</p> <p>3. 자녀보육과 교육</p> <p>4. 기타 국적을 빨리 받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직장에 다니고 싶다.</p>
문화와의 차이점	<p>1. 제주사회 및 문화 이해 정도 언어 습득 초기 단계여서 문화 이해 정도가 낮다.</p> <p>2. 출신국가와 제주문화의 차이 정도 음식과 언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지금도 필리핀 음식이 자주 먹고 싶다(임신 중). 제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다.</p> <p>3. 제주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p> <p>4. 기타 지금 한글 능력시험 2단계 통과하고 계속 공부 중이다.</p>
거주 만족도	<p>1. 제주사회의 거주 만족도 제주에서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 친언니도 제주사람과 결혼했으니 가족 모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p> <p>2. 제주시민에 대한 생각 제주사람과 접촉할 일이 많지 않고, 시댁 식구 정도 만나는데 어려울 때 대화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p> <p>3. 편견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 지금까지는 없다.</p>
한국(제주) 이주정책	
기타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은 국적을 받지 않고 일만 하는 여성들이 많다.
일시·장소	2015년 11월 7일 토요일, 세화 커피숍

연구진

연구책임	황석규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공동연구	고광명	제주대학교 특별연구원
공동연구	김순임	제주대학교 강사

제주학연구 25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분석을 통한 다문화 시민성교육

발행인 || 강기춘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63219 제주시 청사로1길 18-4, 1층(도남동)

전화: (064) 747-6138 팩스: (064) 747-6140

홈페이지: www.jst.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ISBN : 978-89-6010-443-3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